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837-01



성별 관련 공공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 적용 및 차별표현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성별 관련 공공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 적용 및 차별표현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연구수행기관:	한국YWCA연합회
책임연구원:	김은경
연구원:	남유진
연구보조원:	강희영, 이은아
보조원:	이한빛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절차와 범위	4
1) 연구의 절차	4
2) 연구의 범위	5
II. 공공기관 성차별표현 실태 모니터링 현황	7
1. 공공기관 성차별표현 실태 모니터링 국내 현황	7
1) 여성가족부	7
2) 서울시	8
3) 경기도	10
4) 한국YWCA	11
5) 한국여성민우회	11
2. 공공기관 성차별표현 실태 모니터링 국외 현황	11
1) 유네스코(UNESCO)의 미디어에 대한 성인지적 지표(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Framework of indicators to gauge gender sensitivity in media operations and content)	12
2) 유엔(UN)의 모든 성별을 포함하는 언어(Gender-inclusive language)	14
3) 유럽의회(EP)의 젠더 중립적 언어(Gender-Neutral Language)	15
4)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성별 균형적 표현을 위한 묘사 지침(Portrayal Guidelines for Gender Balance Representation)	16
III. 모니터링 방법 및 성별영향평가	17
1. 모니터링 방법	17
1) 모니터링 일정 및 방식	17
2) 모니터링 대상	17
2. 분석틀로서의 성별영향평가	18
IV. 성차별 표현 모니터링 결과 분석	24
1. 부처별/항목별 사례수 분석	24

1) 부차별 성차별 표현 분석	25
2) 성차별 표현 항목별 분석	26
3) 부차별 성차별 표현 항목별 분석 및 경향성 검토	30
2. 성차별 표현 사례별 분석	66
1)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66
2)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74
3)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79
4)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82
5) 성별 대표성 불균형	88
6) 성차별적 귀책 표현	99
7) 구시대적 표현	101

V. 포커스그룹 인터뷰 102

VI. 정책 제언 107

1. 공공홍보를 위한 ‘성평등 이미지’ 제공	107
2. 공공홍보 가이드라인 개발과 사전 컨설팅	112
3. 성고정관념 없는 공공소통을 위한 협약	118
4. 공공홍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119

<표 차례>

<표 1> 모니터링 대상 정부 18개 부처 목록	18
<표 2>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세부항목	19
<표 3> 모니터링 항목	22
<표 4> 모니터링 항목 세분화	22
<표 5> 부처별 성차별 표현 현황	25
<표 6> 성차별 표현 항목별 사례수 및 비율	28
<표 7> 1,9,11번 세부 항목별 사례수 및 비율	28
<표 8> 고용노동부 성차별 표현 현황	30
<표 9> 교육부 성차별 표현 현황	32
<표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차별 표현 현황	34
<표 11> 문화체육관광부 성차별 표현 현황	36
<표 12> 법무부 성차별 표현 현황	38
<표 13> 국방부 성차별 표현 현황	40
<표 14> 국토교통부 성차별 표현 현황	42
<표 15> 농림축산식품부 성차별 표현 현황	44
<표 16> 기획재정부 성차별 표현 현황	46
<표 17> 보건복지부 성차별 표현 현황	48
<표 18> 여성가족부 성차별 표현 현황	50
<표 19> 산업통상자원부 성차별 표현 현황	52
<표 20> 외교부 성차별 표현 현황	54
<표 21> 통일부 성차별 표현 현황	56
<표 22> 중소벤처기업부 성차별 표현 현황	58
<표 23> 해양수산부 성차별 표현 현황	60
<표 24> 환경부 성차별 표현 현황	62
<표 25> 행정안전부 성차별 표현 현황	64
<표 25> 부처별 성차별 표현 경향 분석	102
<표 26> 북유럽국가의 이미지 बैं크 분류 내용	108
<표 27> 경기도 성평등한 도정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내용	114
<표 28> 과학기술분야 여성참여 확대 사례 이미지	117
<표 29> 스포츠 분야 여성 사례 이미지	117
<표 30> 성고정관념 없는 공공소통을 위한 협약 서문	119
<그림 차례>	

[그림 1] 정부조직도(www.president.go.kr 참조, 2021.2.2. 기준)	6
[그림 2] 여성가족부 2021 업무계획_주요업무 추진계획	7
[그림 3]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 주요 내용	9
[그림 4]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젠더 거버넌스 활동사례집	10
[그림 5] 유네스코(UNESCO)의 미디어에 대한 성인지적 지표(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13
[그림 6] 유네스코(UNESCO)의 미디어에 대한 성인지적 지표(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목차	13
[그림 7] 유럽의회(EP)의 젠더 중립적 언어(Gender-Neutral Language)	15
[그림 8]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성별 균형적 표현을 위한 묘사 지침'	16
[그림 9] 부처별 성차별 표현 모니터링 결과(사례수 대비 면적)	24
[그림 10] 부처별 성차별 표현 사례수	26
[그림 11] 부처별 성차별 표현 사례 비율	26
[그림 12] 성차별 표현 항목별 분석 결과	27
[그림 13] 성차별 표현 항목별 사례 비율	27
[그림 14] 고용노동부 성차별 표현 비율	31
[그림 15] 교육부 성차별 표현 비율	33
[그림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차별 표현 비율	35
[그림 17] 문화체육관광부 성차별 표현 비율	37
[그림 18] 법무부 성차별 표현 비율	39
[그림 19] 국방부 성차별 표현 비율	41
[그림 20] 국토교통부 성차별 표현 비율	43
[그림 21] 농림축산식품부 성차별 표현 비율	45
[그림 22] 기획재정부 성차별 표현 비율	47
[그림 23] 보건복지부 성차별 표현 비율	49
[그림 24] 여성가족부 성차별 표현 비율	51
[그림 25] 산업통상자원부 성차별 표현 비율	53
[그림 26] 외교부 성차별 표현 비율	55
[그림 27] 통일부 성차별 표현 비율	57
[그림 28] 중소벤처기업부 성차별 표현 비율	59
[그림 29] 해양수산부 성차별 표현 비율	61
[그림 30] 환경부 성차별 표현 비율	63
[그림 31] 행정안전부 성차별 표현 비율	65
[그림 32]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이미지(고용노동부)	66

[그림 33] 직업에 대한	67
[그림 34]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 관념 이미지(국방부)	68
[그림 35]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 관념 이미지(법무부)	68
[그림 36]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이미지(교육부2)	69
[그림 37]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69
[그림 38] 여성을 의존적, 부수적, 주변적 존재로 묘사(행정안전부)	70
[그림 39] 여성을 의존적, 부수적, 주변적 존재로 묘사(법무부)	70
[그림 40] 여성을 의존적, 부수적, 주변적 존재로 묘사(중소벤처기업부)	71
[그림 33] 고정된 여성 이미지 강조 사례(교육부)	72
[그림 42] 고정된 여성 이미지 강조 사례(고용노동부)	72
[그림 43] 고정된 여성 이미지 강조 사례(국토교통부1)	72
[그림 44] 고정된 여성 이미지 강조 사례(국토교통부2)	72
[그림 45] 고정된 여성 이미지 강조 사례(고용노동부)	73
[그림 46] 여성다움, 남성다움 편견 드러내는 이미지(통일부)	74
[그림 47]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이미지(통일부)	75
[그림 48]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이미지(법무부)	76
[그림 49]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이미지(고용노동부)	76
[그림 50]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이미지(기획재정부)	77
[그림 51]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이미지(법무부)	78
[그림 52]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이미지(여성가족부)	79
[그림 53]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이미지(법무부)	80
[그림 54]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81
[그림 54] 부부, 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하게, 개인간 문제로 가정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이미지	81
[그림 55]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이미지(외교부)	82
[그림 56] 가족 이미지를 특정유형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이미지(교육부)	83
[그림 57] 가족 이미지를 특정유형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83
[그림 58] 가족 이미지를 특정유형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이미지(여성가족부)	84
[그림 59] 가족 이미지를 특정유형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이미지(교육부)	85
[그림 60]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이미지(교육부)	86
[그림 61]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이미지(교육부2)	86
[그림 62]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이미지(고용노동부)	87
[그림 63]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이미지(법무부)	87

[그림 64]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이미지(통일부)	88
[그림 65]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이미지(환경부)	88
[그림 66]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고용노동부)	89
[그림 67]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90
[그림 68]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기획재정부)	90
[그림 69]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91
[그림 70]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교육부)	91
[그림 71]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중소기업벤처부)	92
[그림 72]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92
[그림 73]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외교부)	92
[그림 74]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93
[그림 75]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환경부)	94
[그림 76]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고용노동부)	95
[그림 77]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고용노동부2)	95
[그림 78]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95
[그림 79]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96
[그림 80]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97
[그림 81]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외교부)	98
[그림 82]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통일부)	98
[그림 83]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98
[그림 84] 성차별적 귀책 표현(법무부)	99

[그림 85] 성차별적 귀책 표현(행정안전부)	99
[그림 86] 성차별적 귀책 표현(보건복지부)	100
[그림 87] 성차별적 귀책 표현(여성가족부)	100
[그림 88] 구시대적 표현 사용 이미지(국토교통부)	101
[그림 89] 성평등한 부역에 있는 가족 이미지	108
[그림 90] 육아하는 아빠 이미지	109
[그림 91] 육아하는 아빠 이미지2	110
[그림 92] 플로리스트 남성 이미지	111
[그림 93]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 바이크를 타는 여성, 여성 벌목꾼 이미지	112
[그림 94] 요리하는 아빠, 아이들과 엄마, 부역에 있는 가족, 거실에 있는 가족, 바다가의 가족 이미지	113
[그림 94] 여성은 내부, 남성은 외부로 그린 이미지 사례	116
[그림 95] 성비 균형이 필요한 사진	118
[그림 96] 직업에 대한 성관념을 배제한 이미지	11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정부는 국가 역량 제고와 직결된 문제로 여성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출발 지원, 여성 대표성 제고와 여성인재 양성, 그리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국내외 협력 활성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성주류화와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¹⁾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여성문제전문기구인 여성가족부와 8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광역 단위 여성정책연구기관, 국회 내 상설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1996)에서 출발하여 9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를 아우르는 여성, 성평등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지속적인 변화와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로 제43차 UN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여성정책추진 모범국가로 선정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평등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의 표어처럼 법·제도적 차원의 준비와 노력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지, 즉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2021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되는 유리천장지수²⁾에서 우리나라는 29개 비교국가 중 29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리천장지수는 2013년 ①고등교육 남녀 격차 ②경제활동참가율 ③성별 임금격차 ④여성관리자 비율 등 4개 영역에서 출발하여 2016년 여성임원비율, 여성국회의원비율, 출산휴가 등이 포함된 10개 영역으로 확대하여 평가하고 있다.³⁾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차지한 이유는 32.5%에 달하는 성별 임금 격차(29위/29개국), 여성관리자 비율(29위/29개국),⁴⁾ 기업 이사회 여성임원 비율(28위/29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 (26위/29개국) 등 높은 교육수준에 걸맞지 않은 낮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48.1%) 과 여성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임금차별, 모든 의사결정과정의 과소대표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평등을 향한 노력에 가해지는 저항과 공격, 이른바 백래시 Backlash 현상도 주목할 부분이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어린이단체까지 백래시로 인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미흡한 대응과 타협적 자세가 백래시 현상에 힘을 실어주는

1) <https://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510>

2)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19/03/08/the-glass-ceiling-index>

3) ①고등교육 남녀 격차 ②경제활동참가율 ③성별 임금격차 ④여성 관리자 비율 ⑤이사회 여성임원 비율 ⑥GMAT 시험 (비즈니스 스쿨) 여성 응시율 ⑦여성 국회의원 비율 ⑧평균 임금 대비 순보육 비용 ⑨유급출산휴가기간 ⑩유급부성휴가기간

4) 2020년 현재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은 고위공무원 여성비율 8.5%, 4급 이상 22.8%, 5급 이상 20.8% 공공기관 임원 22.1% 지방공기업 10.6%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성평등에 반대하는 폭력적 반발과 저항에 대하여 논란을 피하기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포스터를 삭제하는데 그치는 대기업과 신중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물을 수정하는 공공기관의 대응은 혐오와 차별을 방관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기에서 '명확한 기준'이란 구성원 일부의 주장이나 그릇된 사회 통념이 아닌 헌법에 명시한 합의된 가치로서 평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⁵⁾,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정부기관은 미온적 대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 관행이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함에도(헌법 제11조) 일상이 되어버린 차별적 상황에 침묵하고 다시 반복, 강화,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문제가 되었던 서울시청 홈페이지의 임신정보 사례는 공무원 조직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수준과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 고정관념(Gender role stereotype)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⁶⁾

성차별적 내용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서울시는 이후 홈페이지 128개소, 투자·출연기관 홈페이지 25개소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차별적 표현과 내용을 적발하고 수정하였다. 조사 결과, '본부장을 특정 성별로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사업을 홍보하는 그림에 넥타이를 맨 남성 캐릭터만 그려 넣은 사례', '소상공인과 관련한 사업 포스터에 양복을 입은 남성 아이콘만 게재해 선입견을 제공한 사례', '시의 투자·출연기관 홈페이지 화면에 양복과 서류 가방만 그려 넣은 경우'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후 서울시는 성차별적 내용을 발견,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 구축과 웹사이트 관리자 대상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교육, 웹사이트 점검 체크리스트 배포·제출 요청, 웹사이트 성차별 표현 자체 점검 등의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기관도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상당 부분 성평등하지 않은 표현과 용어 등을 사용해 왔음이 확인되었다.⁷⁾ 대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2020년 9월 대검 소관 훈령 40개, 예규 230개 등 총 270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검 훈령·예규에 성별을 구분하는 조항이 있는지,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성별에 따른 신체적·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해 반영했는지, 위원회 등의 구성과 관련해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등을 조사하여 훈령 9개, 예규 35개에 대하여 44가지에

5)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6)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시 임신정보 임신 말기 (28주-40주) 임신부가 해야 할 일 ;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은 버리고 가족들이 잘 먹는 음식으로 밀만찬을 서너가지 준비해 둡니다 ; 즉석 카레, 자장, 국 등의 인스턴트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해 두면 요리에 서투른 남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일 또는 7일 정도의 입원 날짜에 맞춰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 양말, 와이셔츠, 손수건, 걸옷 등을 준비해 서랍에 잘 정리해 둡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05500201>

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280600055&code=940301

대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호주’란 용어를 ‘가족’으로 변경하는 등 2개 훈령과 예규 등 7가지 사항을 수정했으나 ‘여종업원’, ‘성매매 여성’, ‘편부, 편모’, ‘소년소녀가장’ 등 대부분의 권고사항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에 기초한 편견과 고정관념, 이로 인한 차별은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되고 재생산된다. 같은 이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역시 다차원적인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성평등한 21세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남성과 소년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2004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에서는 “성평등 완성을 위한 남성과 소년들의 역할(The Role of Men and Boy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을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사회제도 안에서 불평등을 만드는 감추어진 요소들을 밝히고 이를 드러내는 일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평등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단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남녀 모두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조치이다. 지난 3월 개최된 제65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도 ‘남성중심적 규범이 여성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주제로 다루어졌다. 본 회의에서는 사회 규범 속에 남아있는 전통적이고 제한적인 의미의 남성성(Restrictive masculinities)이 지닌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균형적인 규범(Gender equitable alternatives)을 제시하며, 남성과 소년들의 웰빙(well-being)을 포함한 성균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프랑스의 여남평등최고회의(HCE, Le Haut Conseil a l'Egalit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는 ‘성차별적 고정관념 없는 공공홍보 가이드(Pour une communication publique sans stéréotype de sexe)’를 발간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앞장서 모범이 될 것을 요구하며 성고정관념 없이 소통하기 위한 10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 발간된 본 자료는 평등한 소통 방식에 관심을 지닌 제도권 내의 남녀행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성별고정관념이 배제된 공공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협약(La Convention d’engagement pour une communication publique sans stereotype de sexe)’의 형태로 발전하여 경제사회환경위원회, 국립행정학교, 법무부, 지방정부, 대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가이드의 핵심은 한 성이 우월하다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여성형을 반드시 표기함으로써 여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언어적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점이다. 국내의 한 언론사도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차별적인 사회 인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서 벗어나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성폭력 보도에서는 ‘피해자 관점’을 분명히 해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기준을 제시했다.⁸⁾ 등장인물의 성비, 성 고정관념, 성차별 용어 및 표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성평등 보도 기준과 피해자, 가해자, 선정성, 성폭력 이해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 보도 원칙을 제시했다.

혐오와 차별을 뒤로 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의 진입이 결코 한 순간, 대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구촌 각국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부정

8)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95795.html> 한겨레 5월 19일 ‘성별 고정관념 강화하는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고정관념과 편견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의 변화와 관련 법률의 제·개정, 정책과 제도의 변화, 교육과 학습 등 의도적인 노력에 힘입어 개선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통해 합의된 기준을 토대로 한 공적 기준 마련과 평가, 분석, 권고, 이행 등의 절차가 성차별을 고착화하는 문제 해결에 출발점이 될 수 있음도 확인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18개 중앙행정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홍보물 관련 규정 개선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감수성 증진 방안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반으로 13개 성차별적 표현에 대한 항목을 도출하여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등, 성차별적 귀책 표현, 구시대적 표현 등을 살펴 본다.

이 항목들을 통해 18개 정부 부처 공공 홍보물의 이미지와 문구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검토한다. 우선 부처별로 어떤 성차별적 표현이 다수 노출되었는지,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 살펴본 후, 성차별 표현 항목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공공 영역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차별과 혐오 표현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양상을 분석하여 문제적 상황을 정확히 밝혀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절차와 범위

1) 연구의 절차

본 연구는 정부 부처 공공 홍보물에 드러난 성차별적 표현(텍스트, 이미지 포함)을 포착하고 부처별 성차별 표현의 빈도와 유형, 성차별 표현 항목별 빈도와 유형, 각 항목별 사례와 부처별 경향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선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8개 정부 부처의 공식 홈페이지, 필요시 공식 운영 블로그 등의 게시물과 노출 이미지를 대상으로 성차별 표현을 살펴보았다. 성차별 표현은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11개 항목을 기초로, 연구진이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3개 항목에 따라 분류를 시도했다.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 성차별 표현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국내외 사례를 파악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여성가족부, 서울시, 경기도, 서울YWCA,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실시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흐름을 살펴보았고, 국외 사례로는 유네스코(UNESCO)의

‘미디어에 대한 성인지적 지표(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Framework of indicators to gauge gender sensitivity in media operations and content)’, 유엔(UN)의 ‘모든 성별을 포함하는 언어(Gender-inclusive language)’, 유럽의회(EP)의 ‘젠더 중립적 언어(Gender-Neutral Language)’,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성별 균형적 표현을 위한 묘사 지침(Portrayal Guidelines for Gender Balance Representation)’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성차별표현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18개 부처별 사례 수, 성차별 표현 항목별 사례 수, 부처별로 드러난 성차별 표현 항목별 사례 수 등을 드러내었고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 성차별적 귀책 표현, 구시대적 표현 등의 성차별 표현 사례별 분석을 통해 부처별 성차별 표현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이후에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는 관련 전문가 총 4인이 참석하여 각 부처의 성차별 표현에 대한 의견과 도출된 분석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의 논의 및 결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정책 제언은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동시 진행되었던 회의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한 개선점들을 종합하여 도출되었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공공 홍보물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8개 정부 부처의 공식 홈페이지, 공식 운영 블로그 등의 게시물과 노출 이미지 등을 의미한다. 게시물의 범위에는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한 카드뉴스, 동영상, 웹툰, 인포그래픽, 리플렛 등의 이미지와 보도자료, 지침, 교육자료 등의 게시글의 형태 모두를 포함하였다.

II. 공공기관 성차별표현 실태 모니터링 현황

1. 공공기관 성차별표현 실태 모니터링 국내 현황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홍보물 모니터링을 세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주요 업무 중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등]·「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영역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영역은 성평등 총괄, 협력 체계 및 정책 개선 강화를 위한 세부지침으로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과의 협의체를 통해 교육·문화·복지·고용 등 영역별 법령·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 개선을 시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① 성평등 총괄·협력 체계 및 정책 개선 강화

- (정책 개선)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통해 교육·문화·복지·고용 등 영역별 법령·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 점검·개선
- (효과성 제고)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 위한 성 주류화 제도 실효성 강화
 - (성별영향평가) 평가의 질 제고 및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대상과제 선정부터 정책개선 이행, 대국민 홍보까지 추진체계 효과적 개선*
 - * 부처별 개선 과제 선정 → 평가지표 개선 → 특정평가 보고회 등 개선안 공론화 → 우수사례 홍보
 - (성인지 예산) 정책 분야별 성평등 효과 분석 강화, '성인지 예산산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등 기능 강화
- (국제협력) 성 주류화 제도 구축 등 아태 지역 성평등 정책 선도국가로서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가칭)UN Women 지식센터' 설립 추진
 - * 성평등여성평화안보 분야 · 연구개발 · 젠더전문가 등 교육훈련 ·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추진

[그림 2] 여성가족부 2021 업무계획_주요업무 추진계획

또한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9년에 지역의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사업으로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추진한 바 있다. 이 모니터링은 성별영향평가 정책, 지자체·공공기관 홍보물, 지역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실시하였다.⁹⁾ 2017년

에는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과 여성인재 활용 강화'의 세부지침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을 통해 방송, 신문,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양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보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지자체 주요정책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며 각 부처와 협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여성가족부는 매년 양성평등 문화개선 및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업무계획의 주요한 사업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그 지침으로 공공기관의 정책과 홍보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이 민관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 서울시

(1) 서울시 홍보물 모니터링단 운영

2017년 서울시는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¹⁰⁾ 중 하나로 성평등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다. 시민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되는 사례를 해당 기관에 공유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추후 사례집을 발간하여 일상에서의 성평등 가치의 확산을 유도하는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모니터링단은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이 제작하는 대시민 홍보물을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하고, SNS 공유, 서울시 성평등 정책 개선방안 제언 및 정책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3개 분야	주요내용	
평등서울	학교	- 성평등 교육담당 현장활동가 90명 양성 - 어린이집 아동, 초·중학생 3만여 명 조기 교육
		- 교사·학부모 총 7,000명 성인지 강화 교육
		- 서울형 '성평등 교육 교재' 연내 개발
	직장	- 시 전부서 '젠더담당자' 지정·운영 - 직장지원센터 '18년까지 4개 권역별로 확충
존중서울	일상	- 성평등 이미지 이미지모터콘 하반기 제작, 카카오톡 등 통해 무료배포 - 지자체 최초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구제 전문기관 운영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대응 매뉴얼 연내 제작·배포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입법안 정부 건의
안전서울		- 24시 스마트 여성 안심망 '안심아' 앱 4월 서비스 개시(4개구)
		- 여성안심보안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등 확대 운영 - 찾아가는 여성안전체험교실 확대 등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그림 3]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 주요 내용

9) 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347492069>

10) 서울시 소통포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066545>

(2) 젠더거버넌스 성평등 정책제안활동

2013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풀뿌리여성단체의 협업으로 8개 자치구가 참여하면서 성평등 정책제안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2017년 젠더거버넌스 활동이 서울시 협치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활동으로 이어졌다. 매년 200여 명의 활동가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¹¹⁾(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이 사업의 내용은 성주류화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성평등 정책 활동가 양성 및 성인지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2021년 기준 ①성평등정책활동가 양성 및 정책역량 강화 ②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성인지정책 제안 ③젠더거버넌스 성과 공유회 실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부터 매년 서울시 사업 3~5개, 자치구별 평균 4~6개, 전체 110여 개의 사업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 의제를 선정하여 각 대상 의제별로 성인지성 모니터링 지표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자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지표에 맞춰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본 사업은 현장활동의 결과를 정리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 사후간담회를 통해 정책제언,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성인지성과 성평등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대표 사례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YWCA, 풀뿌리여성센터 바람이 2020년 구소식지(성북구), 구정소식지(송파구), 구정홍보지분석(중구), 성동구 소식지(성동구), 구로구소식지(구로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치구 홍보물 정책제안활동이 있다. 2021년 젠더거버넌스 필수과제에는 '자치구 홍보물 정책제안활동'이 제시되었으며, 여기에는 활동가들이 4회의 미디어리터러시 기본교육을 수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2013년 서울시와 7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작된 서울지역 젠더거버넌스는 올해로 8년차로 25개 자치구에 민·관 공동협력을 통한 협의체 구성 및 풀뿌리 여성활동가 200명을 양성하여 성인지적 정책제안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별 공공기관 홍보물 모니터링 제안사업은 여성활동가의 성인지 감수성과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모니터링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시와 자치구에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개선을 제시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의의를 보인다.

3) 경기도

(1) 경기도 홍보물 성인지 모니터링 자체 실시

11)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ul_maeulstory/221982864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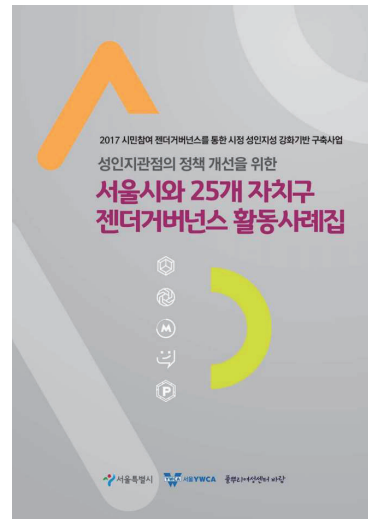
경기도는 여성가족부 지정 ‘경기양성평등센터¹²⁾’에서 ‘경기도 홍보물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양성평등기본법¹³⁾ 제18조와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¹⁴⁾ 제22조를 근거로 도정의 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성인지 관점의 홍보물 가이드 마련을 위해 민선7기 도정 홍보물 249종의 홍보 영상 및 이미지에 대한 성인지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나온 홍보물(인터넷, SNS에 게시한 홍보물 약300종)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표현 및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37종의 홍보물에서 215건의 부적절 요소를 발견하였는데 ‘성별 고정관념’113건(52.6%), ‘성별대표성 불균형’59건(27.4%),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19건(8.8%), ‘외모지상주의’12건(5.6%) 등에 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도시·군 홍보물 제작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성인지 관점 홍보물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활용 방법과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경기도는 특히 기존 사후 모니터링 방식으로 진행되던 ‘성인지 관점 도정 홍보물 모니터링 사업’을 2021년부터 사전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홍보물 제작 단계에서 1차 전문가 확인 단계를 거친 후 2차 개선의견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 배포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마련한 ‘경기도 성평등 홍보물 제작 체크리스트’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2) 경기도 젠더거버넌스

경기도 젠더거버넌스(2016~2019)는 전문위원회, 젠더공감2030청년서포터즈, 여성친화네트워크, 성주류화정책참여단, 젠더문화네트워크, 젠더인권네트워크, 젠더노동네트워크 등 6개의 도민 네트워크단으로 구성되어있다. 젠더거버넌스는 매년 정책모니터링 과제 선정, 모니터링을 위한 활동워크숍과 교육, 모니터링 계획 수립, 현장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활동결과보고회, 네트워크별 정책제안 도출, 전문위원회의 정책제안 선정, 도의 정책제안 수렴, 집행부서의 정책개선 추진 및 정책환류의 순으로 추진되고 있다.¹⁵⁾



[그림 4]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젠더 거버넌스 활동사례집

12)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https://gwff.kr/edubiz/giac/>

13)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6%91%EC%84%B1%ED%8F%89%EB%93%B1%EA%B8%B0%EB%B3%B8%EB%B2%95>

14)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0849&gubun=ELIS>

15) 안태윤, 경기도 젠더거버넌스 운영의 성과와 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172호

4) 한국YWCA

한국YWCA¹⁶⁾는 한국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여성시민단체로, #미투운동(#Me Too) 이후 2016년부터 성평등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채택하였고 전국 52개 지부(회원YWCA)와 26개 지원시설들과 함께 다양한 성평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활동으로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쉼터 운영,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캠페인 진행, 실무 활동가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등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성인지 예산제도 모니터링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서울YWCA는 여성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소그룹 활성화, 성평등 리더 양성을 통한 평등가치의 확산, 생활정치 참여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여성정책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단(구,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단은 주로 미디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공공기관의 홍보물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YWCA는 2017년 여성가족부와 함께 정부 부처별 공공기관 SNS 홍보물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 분석하기 위해 20개 공공기관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1,261건의 홍보 동영상 및 이미지에 대해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로 12개 기관의 17개 홍보물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였다.¹⁷⁾

5)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또한 성평등 미디어팀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1998년부터 현재까지 대중매체 미디어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민우회 차원에서는 지자체와 협업의 형식 혹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조직하여 모니터링 교육과 공공기관 홍보물을 성인지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강원도(강원도청, 춘천시, 강릉시) 홍보물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¹⁸⁾

2. 공공기관 성차별표현 실태 모니터링 국외 현황

16) 한국YWCA연합회 누리집 <https://ywca.or.kr/activity/genderequality/?tab=intro>

17)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http://www.seoulywca.or.kr/theme/basic/skin/board/html/ebook/2017_monitoring/2017_result.pdf

18)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00853>

(1) 유네스코(UNESCO)의 미디어에 대한 성인지적 지표(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Framework of indicators to gauge gender sensitivity in media operations and content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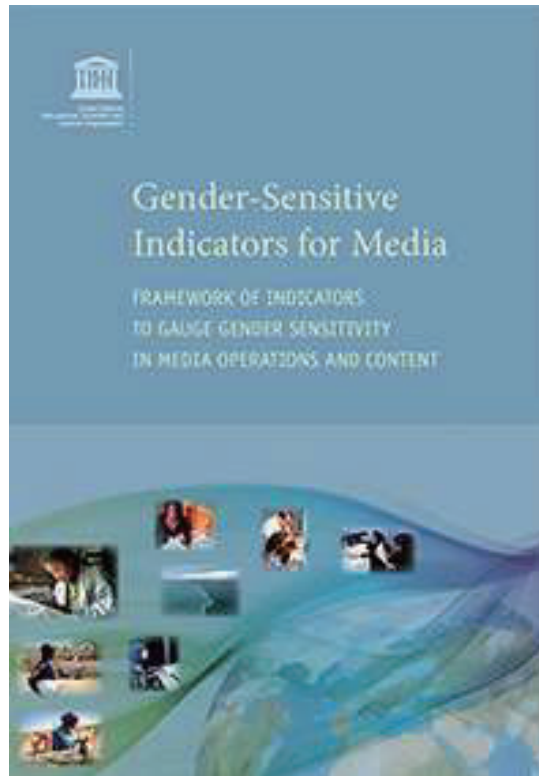
UNESCO는 2012년 ‘미디어에 대한 성인지적 지표(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를 제시하였다. 이 지표는 문화와 사회의 일부로서 미디어는 여성의 권한 부여와 관련이 있음을 명시하고 미디어에 대한 성인지적 지표(gender-sensitive indicators)를 통해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부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성평등을 옹호하는 시민 미디어 그룹, 기타 비정부기구, 언론협회, 언론인 노조 및 클럽, 언론자율규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특히 젠더와 미디어와 관련된 정부부처 또는 협회, 학계, 연구기관 등에 유용한 지표로 제안되었다.

사회적 다양성과 성평등을 위해 제안된 이 지표는 언론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과 남성, 언론 보도를 통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의 두 가지 관점을 주요하게 다루었으며, 2010년 초안 작성 이후 여러 차례 협의회를 거친 후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UNESCO의 미디어에 대한 성인지적 지표(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본질적인 미디어 조직의 성평등 문제(의사결정, 근무환경 등)를 다루었다는 점, ‘사용자 그룹, 중요 관심 영역, 전략적 목표, 지표, 검증 수단’의 구분을 통해 세밀한 젠더감수성 지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9)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resources/publications-and-communication-materials/publications/full-list/gender-sensitive-indicators-for-media-framework-of-indicators-to-gauge-gender-sensitivity-in-media-operations-and-content/>



[그림 5] 유네스코(UNESCO)의 미디어에 대한 성인지적 지표(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Category A: Actions to foster gender equality within media organizations

- A1** Gender balance at decision-making level
- A2** Gender equality in work and working conditions
- A3** Gender equality in unions, associations, clubs and organizations of journalists, other media professionals and media self-regulatory bodies
- A4** Media organizations promote ethical codes and policies in favour of gender equality in media content
- A5** Gender balance in education and training

Category B: Gender portrayal in media content

- B1** Gender portrayal in news & current affairs
- B2** Gender portrayal in advertising

[그림 6] 유네스코(UNESCO)의 미디어에 대한 성인지적 지표(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목차

2) 유엔(UN)의 모든 성별을 포함하는 언어(Gender-inclusive language)

UN의 ‘모든 성별을 포함하는 언어(Gender-inclusive language)’는 UN 직원들의 젠더-통합적인 언어 사용을 돕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서면, 공식/비공식, 내외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 등 어떤 형태의 의사소통에서나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영어는 ‘문법적 성별’,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성별’, 생물학적 특성으로서의 ‘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명사, 소유대명사 등에 있어 젠더 특성이 있고, 문법적으로 젠더 형태의 명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명사들은 구체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의 형태를 지닌다 (actor/actress)는 점에서 모든 성별을 포함하는 언어(Gender-inclusive language)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man으로 끝나는 몇몇 명사들은 젠더들을 포함하기 위해 중립적인 대체 용어가 제안된다. 기본형으로 남성형을 사용하는 것이 영어에 대한 젠더-통합적 의사소통의 목표로 볼 수 있다.

[가장 좋은 실천과 전략]²⁰⁾

1. 비-차별적인 언어 사용

1.1. 호칭의 형태: 성정체성과 일치하는 호칭 및 대명사 사용, 남녀 언급될 때 일관성 있는 직함, 성 등 사용

1.2. 성편향된 표현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 피하기: (예) 그녀는 여자처럼 된다, 공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 숙녀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남자들은 이해 못 해.

2. 의사소통과 관련한 상황에서 젠더를 가시적으로 하기

2.1. 여성, 남성 명사 모두 사용하기: (예) 그 또는 그녀는~

2.2. 두 가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기: 성별을 강조하는 것이 문장을 더 통합적으로 할 때, 두 개의 별도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음. 대중적 믿음이나 선입견이 어느 한 성의 존재나 행동을 모호하게 할 때만 사용해야 함. (예) 소년들과 소녀들은 그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첫 번째 요리 수업에 참석해야만 한다.

3. 의사소통과 관련이 없을 때 젠더를 가시적화하지 않기

3.1. 성중립적 단어 사용: Mankind → Humankind, humanity, manpower shortages → staffing shortages

3.2. 복수 명사와 형용사 사용하기: 이메일과 같은 비공식적인 글쓰기에서, 복수명사는 젠더 포괄성을 보장하는 지름길로서 사용할 수 있음(공식적 글쓰기에는 추천하지 않음)

3.3. one이라는 명사 사용: (예) “A staff member in Antarctica earns less than he would in New York.” → “A staff member in Antarctica earns less than one in New York.”

3.4. who 관계대명사 사용하기: (예) “If a complainant is not satisfied with the board’s decision, he can ask for a rehearing.” → “A complainant who is not satisfied with the board’s decision can ask for a rehearing.”

3.5. 복수 선행사 사용: (예) “A substitute judge must certify that he has familiarized himself with the record of the proceedings.” → “Substitute judges must certify that they have familiarized themselves with the record of the proceedings.”

20) <https://www.un.org/en/gender-inclusive-language/guidelines.shtml>

3.6. 성별화된 단어 생략: (예) “A person must reside continuously in the Territory for 20 years before he may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 “A person must reside continuously in the Territory for 20 years before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ce.”

3.7. 수동태 사용: 모든 문장에 적절한 것은 아니나 젠더화된 구성을 피할 수 있는 옵션임

이처럼 UN의 ‘모든 성별을 포함하는 언어(Gender-inclusive language)’는 국제기구 직원들이 공용어인 영어로 문서 작성 및 발화시 ‘언어라는 매체’에 내재된 성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 유럽의회(EP)의 젠더 중립적 언어(Gender-Neutral Language)

EP는 2008년, 젠더-중립적 언어에 대한 다언어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첫 번째 국제기구이다. 젠더 중립적 언어(Gender-Neutral Language)는 EP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연합이라는 특성 상, 통번역 시 젠더와 관련된 국가별 언어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맥락에서 제안되었다. 영어와 같이 문법적으로 젠더 중립적인 언어의 경우, 특정 성별을 지칭하는 단어 사용을 지양하고 젠더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의장을 뜻하던 ‘chairman’은 ‘Chair’ or ‘chairperson’,으로 경찰관을 뜻하는 ‘policeman’ or ‘policewoman’은 ‘police officer’등을 사용하도록 제안한다. 명사를 ‘성’으로 구분하는 독일어, 로만, 슬라브어 같은 언어에서는 모든 언어를 성중립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 및 정치적 언어로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남성 명사가 대표적이었으나 최근에 들어 이런 직업 명사들의 여성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독일어 판 리스본 조약에서는 시민(citizens)을 나타내는 독일어를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 모두 (Unionsbürgerinnen und Unionsbürger) 사용하였다. 에스토니아어와 핀란드어 같은 젠더리스 언어의 경우 특별한 전략이 필요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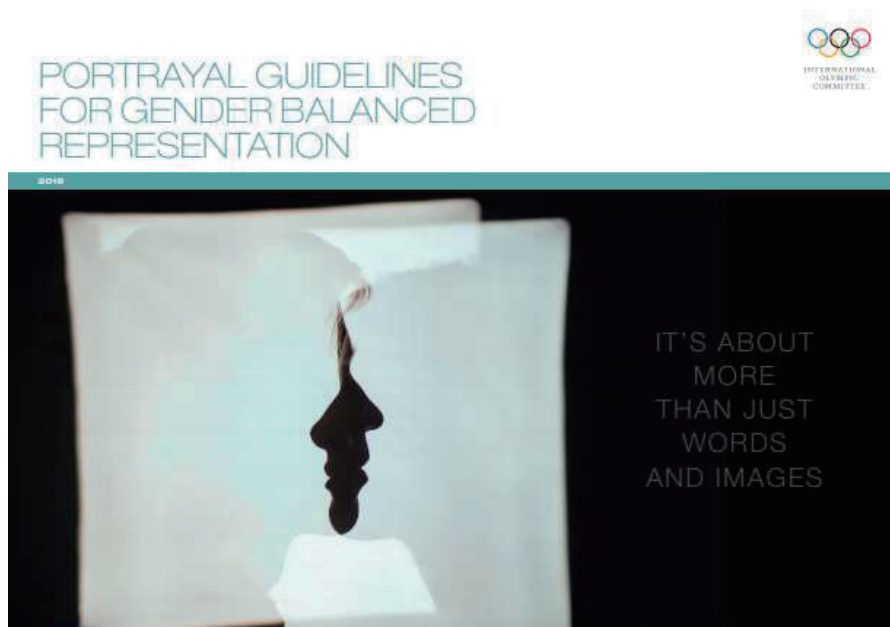


[그림 7] 유럽의회(EP)의 젠더 중립적 언어(Gender-Neutral Language)

이처럼 EP의 젠더 중립적 언어(Gender-Neutral Language)는 정책의 확산 및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국제적 기구에서 공식적인 문서에 사용되는 언어의 파급력을 고려하였고, 언어에 각인되어 있는 성차별성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성별 균형적 표현을 위한 묘사 지침(Portrayal Guidelines for Gender Balance Representation)

IOC는 2018년 스포츠 보도에 있어 성고정관념/클리셰적인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²¹⁾을 제시하였다.



[그림 8]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성별 균형적 표현을 위한 묘사 지침 (Portrayal Guidelines for Gender Balance Representation)’

보도 및 방송시간

- 여성과 남성의 스포츠 방송(이벤트, 인터뷰— 선수 프로필, 해설 등)에서 가능한 동일한 방송 시간이 할당 되도록 하며, 기사 등에 있어서도 성별 간 동등하게 노출되도록 해야 함

이미지

- 기사나 SNS에 사용된 성별 균형 유지, 여성 또는 남성 운동선수에 대한 성적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여성 스포츠를 묘사함에 있어 강함, 스피드를 드러내는 스포츠와 우아함이나 부드러움을 묘사하는 스포츠를 균형있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함

21)

<https://stillmed.olympic.org/media/Document%20Library/OlympicOrg/IOC/What-We-Do/Promote-Olympism/Women-And-Sport/Guide-Genders-Balanced-Representation.pdf>

언어와 용어

- 헤드라인이나 기사, 해설에 있어서 표현과 단어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성고정관념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예) 그녀는 그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남자/야수처럼 수영했다. → 그녀는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결연하게 수영했다.
 - 인터뷰와 해설에 있어서 여성 운동선수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아닌 남성 코치나 남편 등에게 묻는 행위를 피할 것
 - 젠더-특정적인 이슈나 경험을 표현하지 말 것
- (예)어떤 여성 운동선수가 임신으로 인해 쉬를 가지고 훈련이나 시합에 복귀했을 때, 운동선수의 자발적인 의사사가 아니라면 굳이 이 사안에 대해 집중하는 것을 피할 것

이 지침의 내용은 간결하지만 여타 다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던 용어 사용 외에도 이미지 사용과 구체적인 인터뷰 질문과 방법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성차별적 보도 내용이 담긴 예시를 곳곳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개선 예시를 제안하며 올림픽에 참여하는 많은 운동선수들이 훈련이나 시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Ⅲ. 모니터링 방법 및 성별영향평가

1. 모니터링 방법

1) 모니터링 일정 및 방식

본 모니터링은 18개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 및 공식블로그를 대상으로 성평등 관련 전문 인원 2인이 데이터를 수합하고 이에 대해 연구진 피드백 회의를 진행한 후 다시 데이터를 수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데이터 수합은 2021년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6차례 걸쳐 데이터 관련 피드백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외에도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여 모니터링 과정과 분석 결과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취합된 데이터는 회의를 통해 연구 참여 인원 전체가 함께 검토하고, 항목 분류 및 사례 적합성에 대한 환류를 거쳐 최종 데이터로 확정하였다.

2)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대상은 정부 부처 공공홍보물로, 연구 범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8개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로 범위를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부처 특성상 모니터링 사례로서의 이미지가 충분하

지 않고 블로그를 통해 정책 홍보와 소통을 진행하는 경우,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도 범위에 포함하였다.

<표 1> 모니터링 대상 정부 18개 부처 목록

부처	주소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
교육부	https://www.moe.go.kr/
국방부	https://www.mnd.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법무부	https://www.moj.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외교부	https://www.mofa.go.kr/
외교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List.nhn?blogId=mofakr&from=postList&categoryNo=1&parentCategoryNo=1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bizinfo1357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

2. 분석틀로서의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기본법 제 15조)²²⁾란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중앙부처와 지방자

22)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치단체의 법령과 사업 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정부홍보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부처의 공공 홍보물의 이미지와 문구를 대상으로,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아래 <표 2>는 2021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세부항목²³⁾으로, 이 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해 제작하는 홍보물이다.

<표 2>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세부항목

<p style="text-align: center;">①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p>	<p>①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여성은 보조자, 질문자, 생계보조자, 소비자 등 / 남성은 의사결정자, (질문의)답변자, 생계 부양자, 생산자 등으로 표현 ▶ (직업) 여성은 교사, 간호사, 상담사, 서비스직, 전업주부 등 / 남성은 의사, 과학자, 법률가, 건축가, 생산기술직 등으로 표현 ▶ (취미) 여성은 쇼핑, 음악, 문학 /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 (지위) 여성은 하위직이나 보조적인 위치 / 남성은 회사 대표, 관리자 등 지도층으로 표현 <p>②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은 유약하고 소극적이고 수줍은 모습으로 / 남성은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씩씩한 모습으로 표현 ▶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란색으로 표현 ▶ 여성은 다리를 오므리고 남성은 벌리고 있는 표현 ▶ 여성은 무용, 요가 등 개인활동 / 남성은 축구 등 단체활동(운동)
<p style="text-align: center;">② 성차별적 표현/비하/ 외모지상주의</p>	<p>①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거나 미망인, 출가외인, 여자답지 못하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 ▶ 여직원(→직원), 처녀작(→첫작품), 남성적/여성적 등 ▶ ‘○○녀’, 내조, 집사람, 주부, ○○씨(여) 등 성별에 따라 구분하거나 차별적으로 설명하는 표현 ▶ 남성에 대해 남성은 울지 않는다, 남자가 그것도 못해? ▶ 여성(아내)은 존댓말 / 남성(남편)은 반말의 동등하지 못한 대화 <p>②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p>

23) 여성가족부(2020).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p style="text-align: center;">[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은 외모·쇼핑에 관심을 집중하는 허영심 많은 이미지, 남성은 과음·흡연 등의 이미지로 표현 ▶ 여성은 보호받는 사람, 듣는 사람, 따르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 남성은 보호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주도하는 사람, 질문에 답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으로 표현 ▶ 육아휴직 중인 남성, 전업주부 남성, 돌봄노동하는 남성을 무능력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남성으로 회화화하며 표현 ▶ 김치녀, 된장녀, 한남충과 같은 혐오 표현 ▶ 여성 이미지는 작게, 남성 이미지는 크게 묘사 <p>③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희화화 혹은 신체를 부각해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이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인물의 외모를 성별로 이분화시켜 여성성 또는 남성성을 과장되게 표현 ▶ 여성은 짙은 화장, 긴 머리, 날씬한 외모, 가슴을 강조하거나 잘록한 허리, 몸에 꼭 끼는 상의와 치마, 하이힐 차림, 수줍은 표정 등으로 / 남성은 짧은 머리, 키가 크고 건장한 외모, 근육질의 몸매, 넥타이와 양복차림 등으로 표현 ▶ 키가 작거나, 머리가 크거나, 왜소한·뚱뚱한 체격을 회화화하는 표현 ▶ 짧고 키가 크고 날씬하고 잘생긴 외모의 등장인물만 제시 ▶ 등장인물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나 평가 ▶ 노화나 나이 들, 장애 및 이주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표현
<p style="text-align: center;">③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p>	<p>①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을 특정 성별로 구분하여 표현하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성을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표현(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 등) ▶ 가해자는 거구의 체격, 커다란 주먹으로 특정하거나, 야수·괴물·악마 등 비현실적인 존재로 표현 / 피해자는 작은 체구, 울고 있거나 움츠린 모습,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으로 표현 <p>②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 혹은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연인간의 폭행, 폭언을 사랑싸움이라고 표현 ▶ 억지로 잡아끌거나 벽에 밀치는 행동 등 강제적 행동을 애정의 표현 ▶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음담패설을 장난이나 사소한 문제로 표현 <p>③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가 밤늦게 집밖에 다니거나 야한 옷을 입어서, 남자가 허약해서 폭력을 당했다는 표현 ▶ 성범죄를 회화화하여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재현 ▶ 범죄 피해자에게 유약함, 무결함 등의 특정 이미지를 부여하는 표현
<p style="text-align: center;">④ 가족에 대한 고정 관념/편견</p>	<p>①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만 한정하고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을 표현할 때 부모+아들+딸 또는 부모+아들이나 딸로 구성된 이미지로 한정하여 표현 ▶ 가족 구성원 표현할 때, 특정 피부색이나 연령에 한정하여 표현 <p>②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고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여성은 가사(식사 준비, 청소 등)와 가족 돌봄(육아 및 훈육, 병간호 등), 생계 보조자, 혼수 마련 등의 역할 / 성인 남성은 가장, 생계 부양자, 주택 마련 등의 역할 ▶ 미성년 여성(딸, 손녀 등)은 애교 많고 귀엽거나 얌전한 모습 / 미성년 남성(아들, 손자 등)은 호기심, 장난기, 듬직한 모습으로 묘사 ▶ 아동과 함께 놀아주고, 보호하는 성인역할은 여성으로 표현 ▶ 아버지는 가족의 중심에 위치 (식탁 상석에 앉은 모습, 가족 구성원을 모두 안고 있는 모습 등 힘을 강조하는 표현) ▶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 아버지, '만머느리감'이다 등의 표현
<p style="text-align: center;">5 성별 대표성 불균형</p>	<p>①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쳐 있거나 배제하고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대상자가 남녀노소임에도 젊은 남녀만 표현 ▶ 사회 다양한 영역에 대해 특정 성만으로 표현(여성은 문화, 상담, 판매, 미용, 돌봄, 가정생활 등 / 남성은 과학·기술, 스포츠, 게임, 일자리 등) ▶ 주요 분야의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특정 성별로 표현(국방, 안보, 외교, 통일, 정치 분야는 남성 / 교육, 문화, 보건 등은 여성) ▶ 남성이 사람 또는 직군을 대표(픽토그램·아이콘 - 넥타이, 양복소매 표현) ▶ 다양한 시민 활동을 표현할 때, 특정 성별이나 연령, 피부색에 한정하여 표현 <p>※ 보조 장구를 활용하여 신체 활동을 하는 시민이 배제된 상태로 표현</p>

본 연구의 연구진은 성별영향평가 항목을 토대로 18개 부처의 성차별 표현 데이터를 수집, 분류하기 위한 분석 항목을 마련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범죄 가해자·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등의 11개 항목은 기존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지침의 항목을 따랐다.

또한 이에 저출산, 모성 강조 등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성차별적 귀책 표현',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구시대적 표현'의 사용을 12, 13번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이 두 항목은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등의 항목과 약간의 중첩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성차별적 표현을 더욱 부각하고 그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사례의 특성상 한 사례당 여러 항목에 해당하는 중복 사항이 있는 사례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카운트하였다.

<표 3> 모니터링 항목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1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2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성차별적 표현/비하/ 외모지상주의	3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4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5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6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7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8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9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10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성별 대표성 불균형	11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성차별적 귀책 표현	12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구시대적 표현	13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특히, 13개 항목 중 사례수가 100건 이상 수합된 1.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9.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11.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의 세 항목은 하위 항목을 추출하여 좀 더 세부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항목은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을 의존적·부수적·주변적 존재로 묘사, 고정된 여성적 이미지 강조(치마, 핑크색, 긴 머리 등)의 세 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었고,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항목은 3-4인 가족 이미지를 정상가족으로 표현, 한부모 가족을 어머니와 딸·아들로 한정, 맥락에 맞지 않는 이성애 결혼 이미지 표현·다양성 무시 등의 세 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뉘었다.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항목은 취약계층, 노약자 등에 여성 이미지 강조, 전문직, 기업대표 등에 남성 이미지 강조, 다수인물 등장 시 남성 과다 등장 및 대표인물을 남성으로만 표현 등의 세 개 하위 항목으로 나누었다. 이 하위 항목들은 수집된 사례를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표 4> 모니터링 항목 세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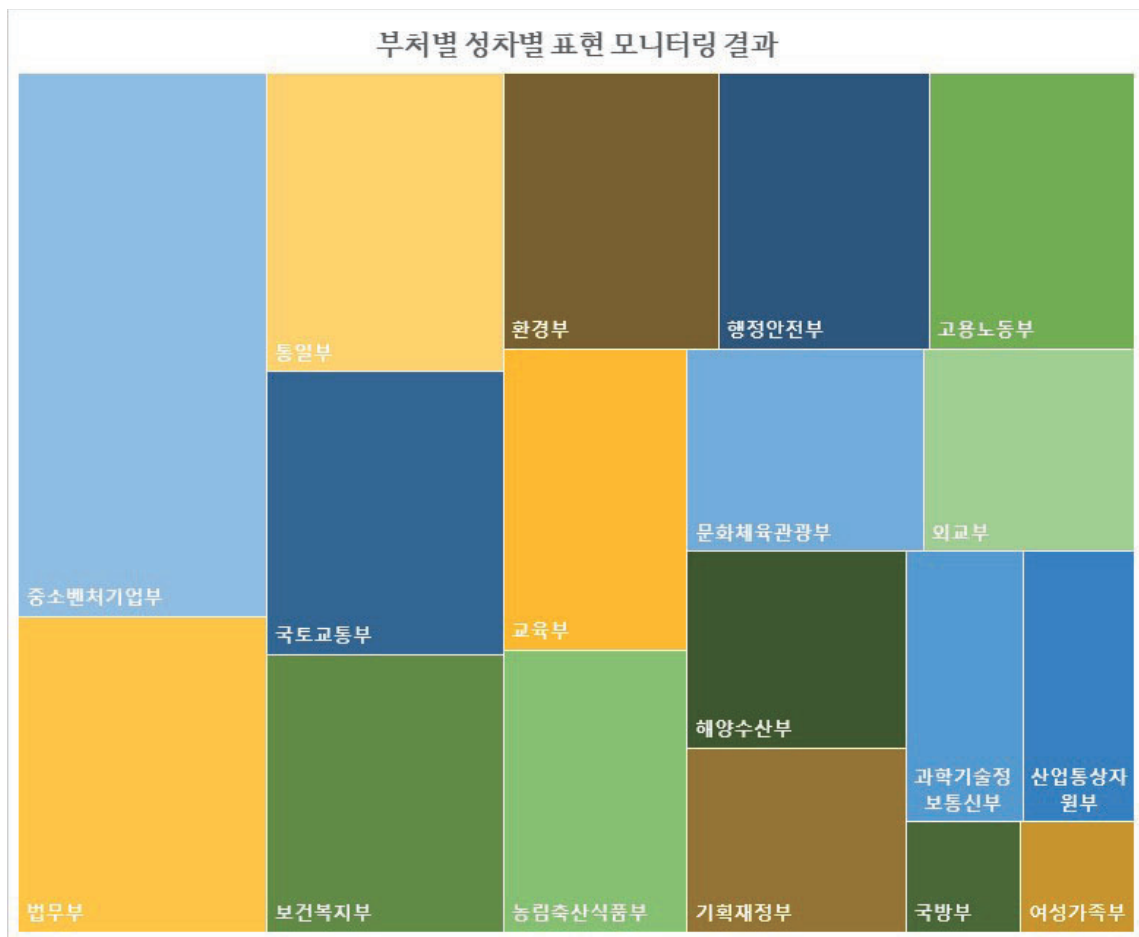
분류	항목
1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101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102	여성을 의존적, 부수적, 주변적 존재로 묘사

103	고정된 '여성적' 이미지 강조- 치마, 핑크색, 긴 머리 등
9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901	3-4인 가족 이미지를 정상가족으로 표현
902	한부모 가족을 어머니와 딸아들로 한정
903	맥락에 맞지 않는 이성애결혼 이미지 표현 다양성 무시 등
11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1101	취약계층, 노약자 등에 여성 이미지 강조
1102	전문직, 기업대표 등에 남성 이미지 강조
1103	다수인물 등장 시 남성 과다 등장 및 대표인물을 남성으로만 표현

IV. 성차별 표현 모니터링 결과 분석

1. 부처별/항목별 사례수 분석

이 장에서는 18개 정부 부처(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등 이하 '18개 부처')별 성차별 표현이 발견된 사례수, 성차별 표현 항목별 사례수, 각 부처별, 성차별 표현 항목별 사례수 등 모니터링 결과 중 양화한 데이터를 제시한다.



[그림 9] 부처별 성차별 표현 모니터링 결과(사례수 대비 면적)

1) 부처별 성차별 표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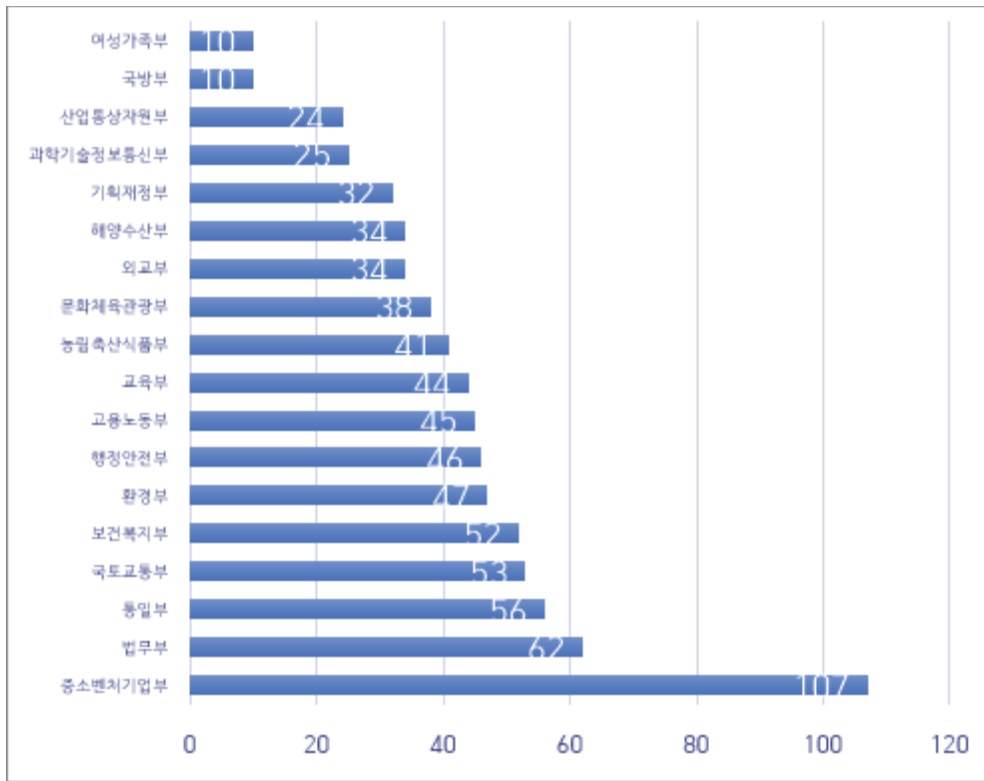
18개 부처의 성차별 표현 사례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총 760건 중 고용노동부 45건(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건(3.3%), 교육부 44건(5.8%), 국방부 10건(1.3%), 국토교통부 53건(7.0건), 기획재정부 32건(4.2%), 농림축산식품부 41건(5.4%), 문화체육관광부 38건(5.0%), 법무부 62건(8.2%), 보건복지부 52건(6.8%), 산업통상자원부 24건(3.2%), 여성가족부 10건(1.3%), 외교부 34건(4.5%), 중소벤처기업부 107건(14.1%), 통일부 56건(7.4%), 해양수산부 34건(4.5%), 행정안전부 46건(6.1%), 환경부 47건(6.2%)을 각각 차지하였다.

전체 평균은 42.2건으로,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성차별 표현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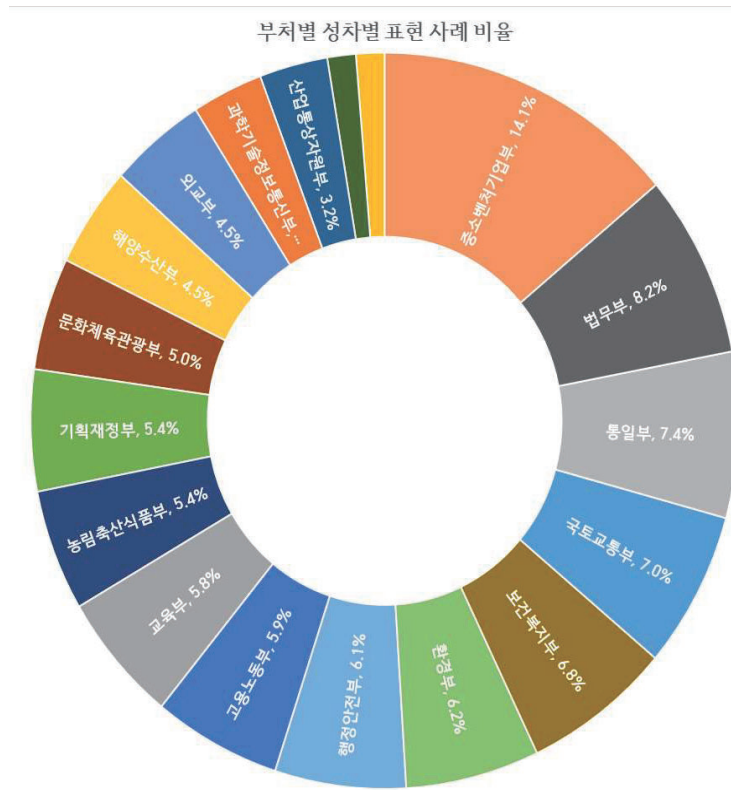
<표 5> 부처별 성차별 표현 현황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45 (5.9%)	25 (3.3%)	44 (5.8%)	10 (1.3%)	53 (7.0%)	32 (4.2%)	41 (5.4%)	38 (5.0%)	62 (8.2%)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52 (6.8%)	24 (3.2%)	10 (1.3%)	34 (4.5%)	107 (14.1%)	56 (7.4%)	34 (4.5%)	46 (6.1%)	47 (6.2%)
760 (100.0%)								

다음 [그림 10]은 부처별 성차별 표현 사례수를 오름차순 정렬한 그래프, [그림 11]은 부처별 성차별 표현 사례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18개 부처 중 성차별 표현 사례가 가장 적게 보인 곳은 여성가족부(10건, 1.3%)와 국방부(10건, 1.3%), 산업통상자원부(24건, 3.2%) 등으로 나타났다. 성차별 표현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중소벤처기업부(107건, 14.1%), 법무부(62건, 8.2%), 통일부(56건, 7.4%), 국토교통부(53건, 7.0%), 보건복지부(52건, 6.8%) 순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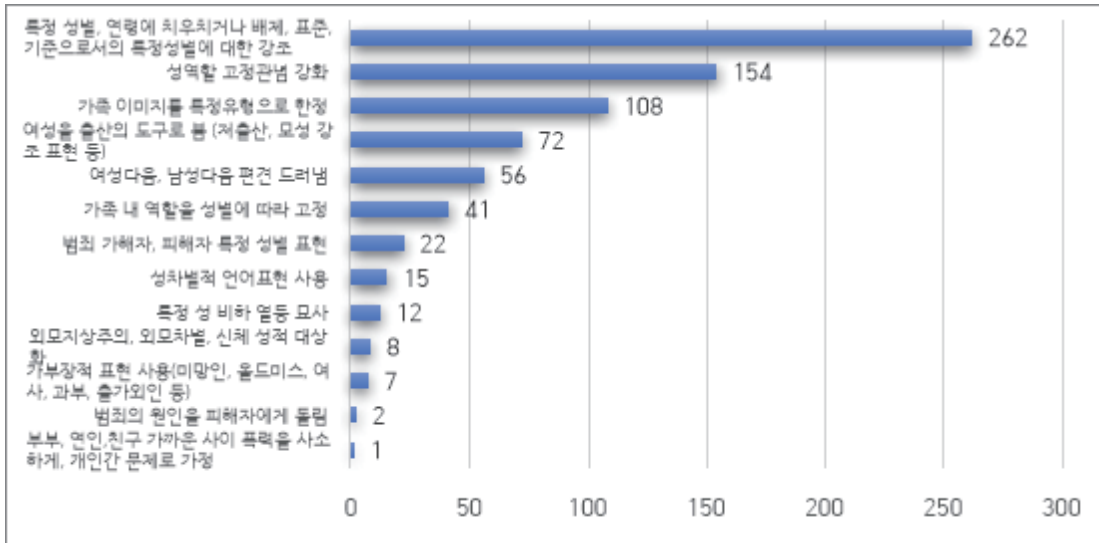
[그림 10] 부처별 성차별 표현 사례수



[그림 11] 부처별 성차별 표현 사례 비율

2) 성차별 표현 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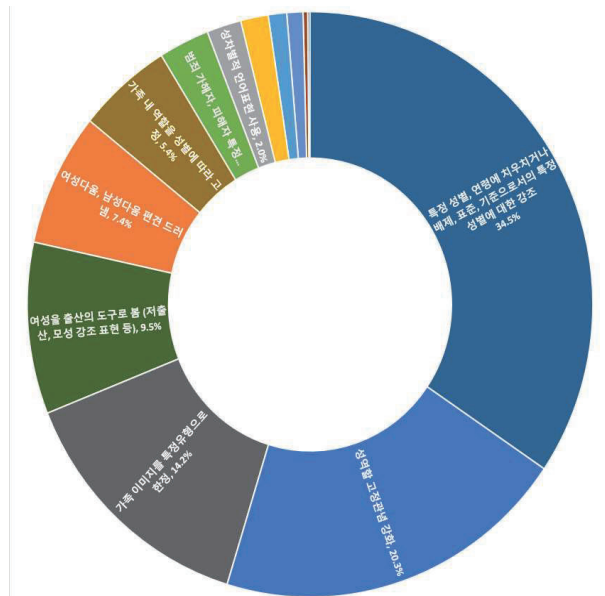
성차별 표현 중 18개 부처 공공 홍보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항목은 아래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로 전체 사례 중 34.5%에 해당하는 262건이 확인되었다. 이어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항목이 그 뒤를 이었는데, 총 154건으로 20.3%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사례도 108건(14.2%)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그림 12] 성차별 표현 항목별 분석 결과

가장 적게 발견된 성차별 표현 항목은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1건, 0.1%)'하는 항목과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2건, 0.3%)'항목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평균 사례수는 58.5건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등의 항목이 평균 사례수보다 많이 발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3] 성차별 표현 항목별 사례 비율

<표 6> 성차별 표현 항목별 사례수 및 비율

분류	분류 번호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 관념 및 편견	1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154	20.3
	2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56	7.4
성차별적 표현/비하/ 외모지상주의	3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15	2.0
	4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12	1.6
	5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8	1.1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6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22	2.9
	7	부부, 연인, 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하게, 개인 간 문제로 가정	1	0.1
	8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2	0.3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9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108	14.2
	10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41	5.4
성별 대표성 불균형	11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262	34.5
성차별적 귀책 표현	12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72	9.5
구시대적 표현	13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7	0.9
합			760	100.0

<표 7> 1,9,11번 세부 항목별 사례수 및 비율

분류번호	항목	사례수	비율(%)
1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1-1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118	76.6
1-2	여성을 의존적, 부수적, 주변적 존재로 묘사	16	10.4
1-3	고정된 여성 이미지 강조(치마, 핑크색, 속눈썹 등)	20	13.0
		154	100.0
9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9-1	3-4인 가족 이미지를 정상가족으로 표현	104	96.3
9-2	한부모 가족을 엄마와 자녀 관계로 한정	2	1.9
9-3	맥락에 맞지 않는 이성애 결혼 이미지 표현 다양성 무시	2	1.9
		108	100.0
11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11-1	취약계층, 노약자 등에 여성 이미지 강조	11	4.2
11-2	전문직, 기업대표 등에 남성 이미지 강조	191	72.9
11-3	다수인물 등장 시 남성 과다 등장 및 대표인물을 남성으로만 표현	60	22.9
		262	100.0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항목은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을 의존적, 부수적, 주변적 존재로 묘사’, ‘고정된 여성 이미지 강조(치마, 핑크색, 속눈썹 등)’의 하위 항목이 추출되었다. 이 중에서도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전체 154건 중 118건(76.6%)에 해당하여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항목은 ‘3-4인 가족 이미지를 정상가족으로 표현’, ‘한부모 가족을 엄마와 자녀 관계로 한정’, ‘맥락에 맞지 않는 이성애 결혼 이미지 표현 등 다양성 무시’등으로 재분류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는 ‘3-4인 가족 이미지를 정상가족으로 표현’항목이 108건 중 104건(96.3%)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는 ‘취약계층, 노약자 등에 여성 이미지 강조’, ‘전문직, 기업대표 등에 남성 이미지 강조’, ‘다수인물 등장 시 남성 과다 등장 및 대표인물을 남성으로만 표현’등의 하위 항목으로 나뉘었다. 이 중 ‘전문직, 기업대표 등에 남성 이미지 강조’항목이 262건 중 72.9%에 해당하는 191건으로 큰 비중을 드러내었다.

3) 부처별 성차별 표현 항목별 분석 및 경향성 검토

(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성차별 표현 사례수는 총 45건으로, 전체 760건 중 5.9%를 차지하여 18개 부처 중 8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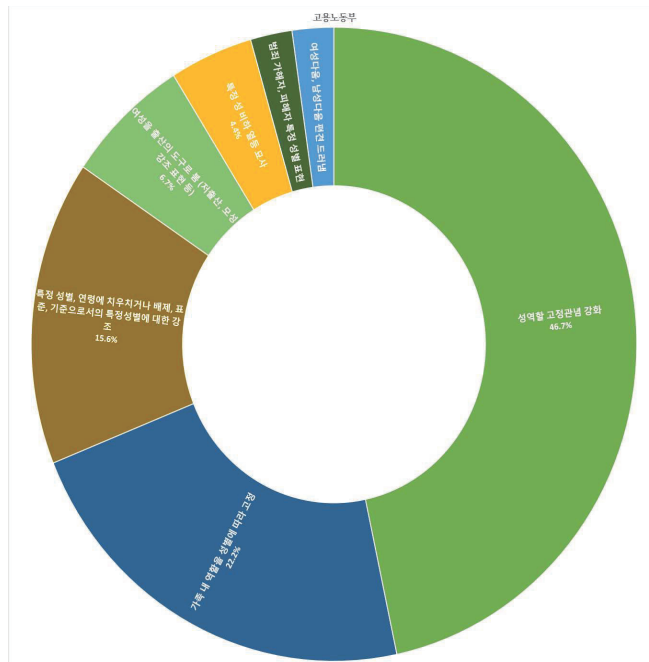
항목별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 표현 사례가 21건(46.7%)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표현이 10건(22.2%),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표현이 7건(15.6%)으로 뒤를 이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 표현 사례는 고용노동부에서 특히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전체 부처 중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직업현장을 묘사하는 이미지와 표현 등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을 상당히 고정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신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관련된 항목에서 관찰된 사례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단, 직장 내 성차별과 외모에 대한 편견,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이 여전히 심각한 현실 속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8> 고용노동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21	46.7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1	2.2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0	0.0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2	4.4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0	0.0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1	2.2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0	0.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0	0.0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10	22.2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7	15.6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3	6.7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0	0.0
합	45	100.0



[그림 14] 고용노동부 성차별 표현 비율

고용노동부의 경우, 고정화된 성별 분업노동의 이미지가 많이 노출되었다. 예컨대, 면접상황에 추천하는 의상이나 강조할만한 직무 관련 역량에 대해 고정된 성차별적 표현이 드러났으며, 가정과 일 연계 정책 홍보 시에는 여성 이미지가 주로 사용되고 출퇴근을 하는 임금노동자의 이미지로는 남성 이미지가 다수 등장하였다.

직장 상사, 노사 대표 이미지에는 주로 남성 모델이 등장하고 남성은 간부/여성은 평직원으로 대비되는 사례, 근로자만 등장하는 경우에는 남성이 대표성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여성 지원정책에서는 ‘출산 및 육아’관련 문제 해결 정책이 주를 이루면서 모성보호 급여 같은 경우 유아나 아동과 함께 있는 여성 이미지가 대부분 등장하고, ‘모성’을 강조하는 사례를 자주 찾아볼 수 있었다.

(2) 교육부

교육부에서 관찰된 성차별 표현은 총 44건으로 전체 760개 사례 중 5.8%를 차지하여, 18개 부처 중 9번째로 성차별 표현이 많은 부처로 나타났다.

성차별 항목별 사례수를 살펴보면,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표현이 14건(31.8%),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표현이 11건(25.0%),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표현이 7건(15.9%),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표현이 6건(13.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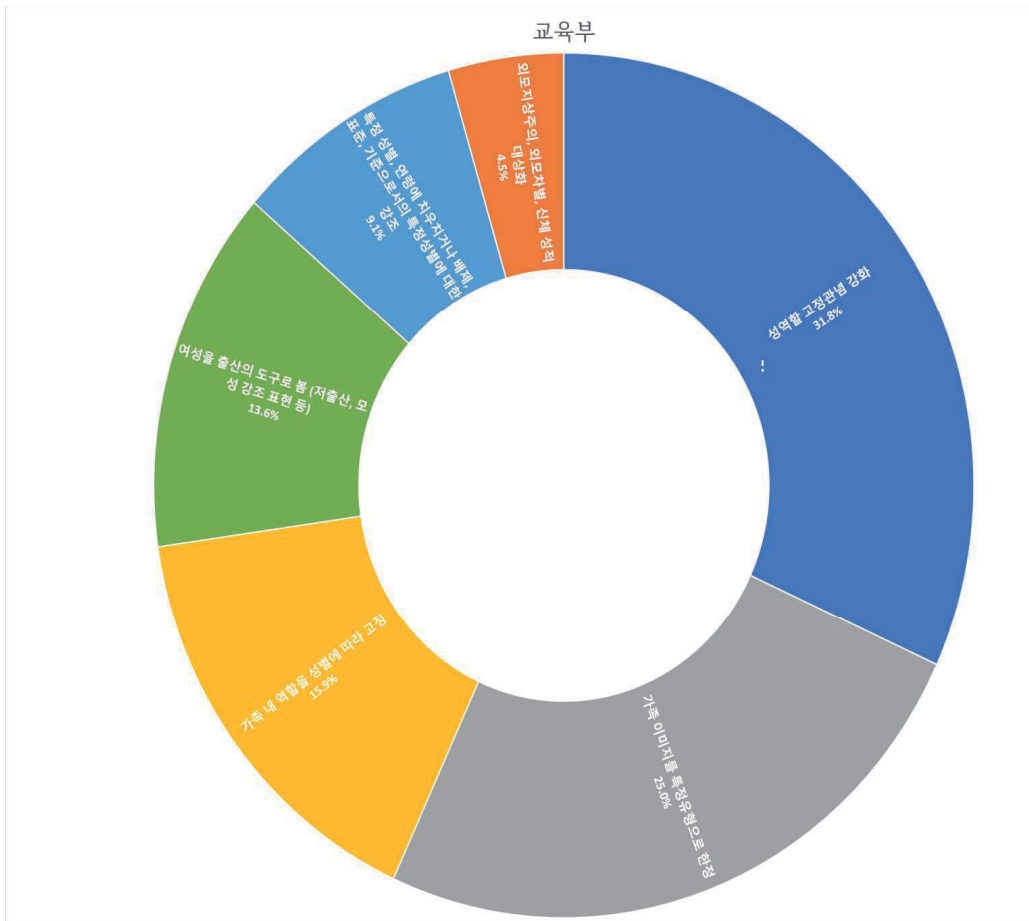
교육부에서는 성역할, 가족 이미지, 가족 내 역할 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교육부가 전통적인 가족과 학생, 교사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상과 성별에 무관한 역할분담 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표현이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간 표현에서는 사례가 매우 적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성차별과 폭력 문제는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받는 문제인 만큼, 교육부의 공식적 게시물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관련 차별 표현이 2건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보다 세심한 문제의식이 요구된다.

<표 9> 교육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14	31.8%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0	0.0%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0	0.0%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0	0.0%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2	4.5%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0	0.0%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0	0.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11	25.0%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7	15.9%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4	9.1%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6	13.6%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0	0.0%
합	44	100.0%

교육부의 경우, 특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차별 표현은 학부모 이미지에 대한 것으로,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 중지 상황에서 가정-학교 연계 교육 정책을 설명하는 홍보자료, 가정 보육에 관한 홍보자료 등 대부분 가정을 대표하는 인물로 '여성'을 배치하였다. 학부모 중 한 명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어김없이 여성을 등장시켜 '모성'을 강조하고 여성의 돌봄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노출하였다.



[그림 15] 교육부 성차별 표현 비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총 25건의 성차별 표현이 발견되어, 전체 사례 수 760건 대비 3.3%를 차지하였다. 18개 부처 중 15번째에 해당해,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과기부에서는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표현이 11건으로 44.0%에 해당했고,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표현이 6건(24.0%),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표현이 2건(8.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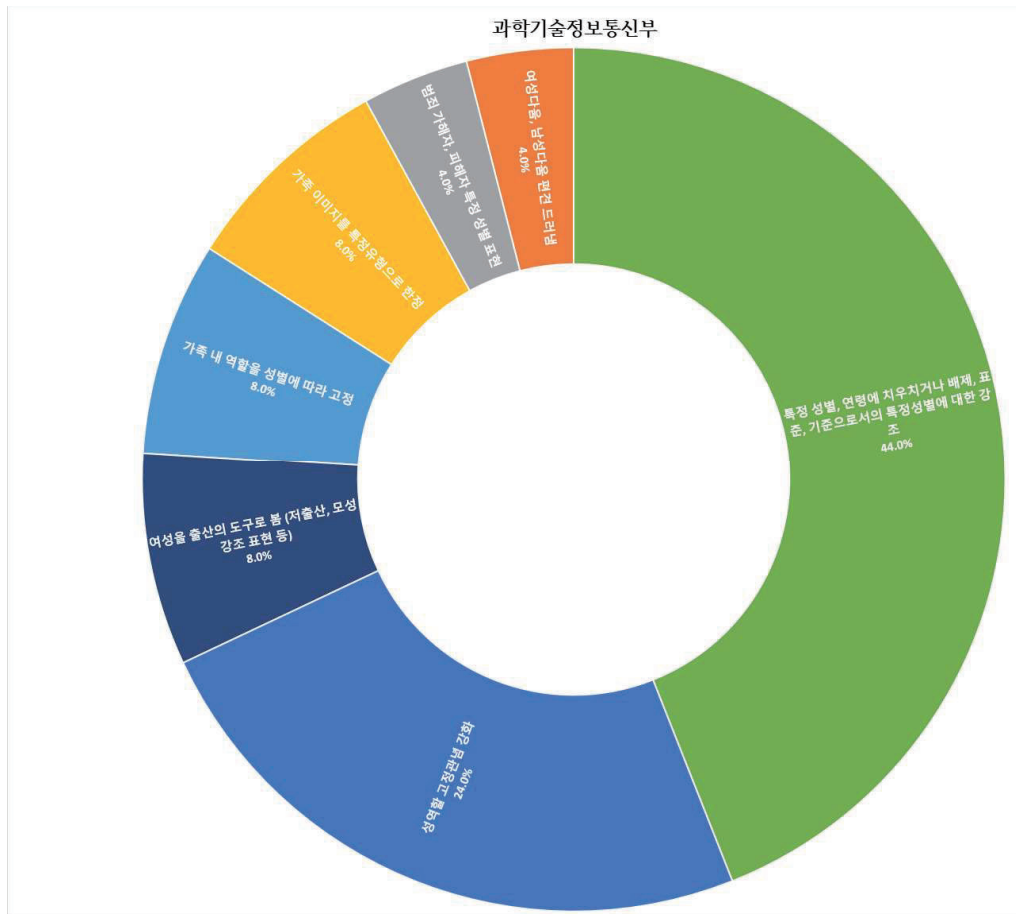
과기부는 상대적으로 성차별 표현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표현하는 이미지나 상징에서 남성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표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6	24.0%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1	4.0%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0	0.0%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0	0.0%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0	0.0%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1	4.0%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0	0.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2	8.0%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2	8.0%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11	44.0%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2	8.0%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0	0.0%
합	25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로 4차 산업과 기술정책 지원에 대한 홍보뉴스가 많고, 내용의 특성상 사람 이미지가 많이 쓰이지는 않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 홍보 시, 첫 이미지나 주요 위치에 자리한 사람이 주로 남성이었고, 청년 과학자 지원에 관한 정책 홍보 게시물에는 대부분 남성의 전문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었으며, 간담회, 협약식, 포럼 등의 행사 사진에 대다수가 남성이었다. 여성 과학자 및 기술인이 20% 수준²⁴⁾인 현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의식적인 평등 정책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4)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재직자 성별 비율 변화추이('09-' 18)<https://blog.naver.com/wisetter/221804453351>



[그림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차별 표현 비율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관찰된 성차별 표현은 38건으로 전체 사례 760건 중 5.0%를 차지했다. 전체 18개 부처 중 11번째에 해당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표현 9건(23.7%),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표현 9건(23.7%),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표현 7건(18.4%)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성역할이나 가족 이미지를 전형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여성에 대한 이미지 역시 모성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의 편견을 드러내는 사례도 4건이 관찰되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반복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 문화체육관광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9	23.7%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4	10.5%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0	0.0%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2	5.3%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0	0.0%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0	0.0%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1	2.6%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9	23.7%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0	0.0%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6	15.8%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7	18.4%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0	0.0%
합	38	100.0%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문화-여가 시간 홍보 정책에 관련한 이미지에 고정적인 가족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과 문화, 체육, 관광 영역에서 여성을 표현하며 하이힐을 신고 치마를 입은 채 신체의 굴곡을 강조하는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두 영역이 교차하여 발견되는 홍보물로는 치마를 입은 엄마와 머리핀을 꽂은 딸 모두 붉은 계통의 옷을 입고, 아버지와 아들은 푸른 계통의 옷을 입은 4인 가족 이미지가 맥락과 큰 관련 없이 활용된 문화영향평가제도 정책 홍보 이미지²⁵⁾가 있다.



[그림 17] 문화체육관광부 성차별 표현 비율

(5) 법무부

법무부에서 발견된 성차별 표현은 총 62건으로 전체 사례 760건의 8.2%에 해당했다. 법무부는 전체 18개 부처 중 성차별 표현이 2번째로 많이 사용된 부처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범죄 가해자, 피해자의 특정 성별을 표현하는 경우가 18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표현이 12건(19.4%),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표현이 10건(16.1%),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이 8건(12.9%)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는 부처 특성 상 범죄 관련 게시물의 빈도가 높는데, 이때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성을 모성이나 출산과 결합해 표현하거나, 정상적인 가족 이미지를 표준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다수 관찰되었다.

단, 범죄 관련 사안을 다루면서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하게 다루거나,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의 차별적 표현은 발견되지 않은 점이 긍정적이다.

25)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주요정책> 정책홍보> 홍보물> 문화예술·종무> 문화영향평가제도
https://www.mcst.go.kr/kor/s_policy/subPolicy/cultureart/cultureart04.jsp?pSeq=8

<표 12> 법무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8	12.9%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2	3.2%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0	0.0%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2	3.2%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2	3.2%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18	29.0%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0	0.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10	16.1%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1	1.6%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6	9.7%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12	19.4%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의인 등)	1	1.6%
합	62	100.0%

법무부의 경우, 부처 특성상 범죄 관련 정책 홍보 시 성별화된 이미지의 노출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성범죄 대응 정책의 홍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이미지가 성별로 고정화되어 있으며, 이 맥락에서 피해자 이미지는 여성-아동으로 나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반복적인 이미지 노출은 피해자 이미지 고착화와 재생산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 성범죄자를 표현할 때에는 험악한 모습의 악마나 동물로 표현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해석을 덧붙이는 것 또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홈페이지 전반에 걸쳐 성별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가 발견되었다. 정책 홍보 동영상에 등장하는 수사관, 검사, 법무관, 자문위/법무부 공무원 등 다수 전문직종을 표현할 때 남성 전문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치유, 돌봄 이미지에는 여성 이미지를 배치하여 피해자 지원 정책에 있어서 대부분 조력자나 보호자는 ‘여성’으로 모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활용되는 것이 눈에 띄었다.

<표 13> 국방부 성차별 표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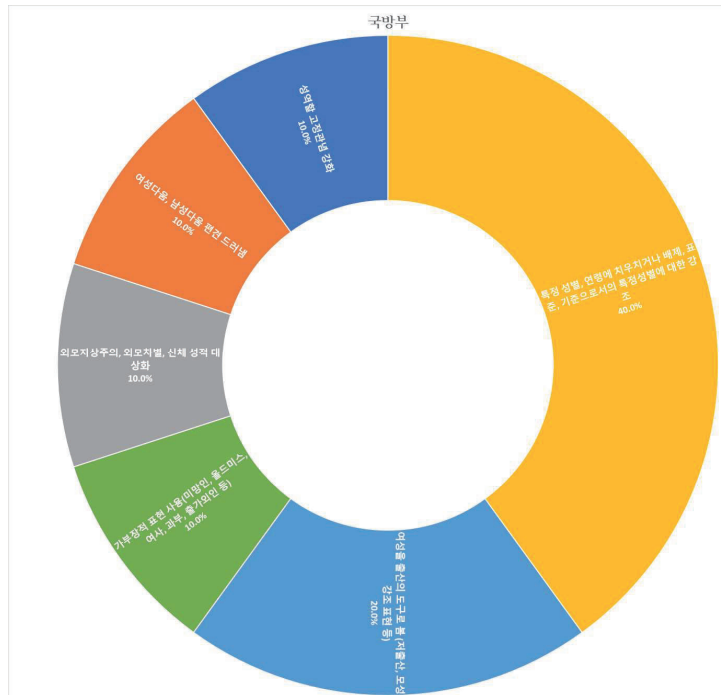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1	10.0%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1	10.0%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0	0.0%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0	0.0%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1	10.0%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0	0.0%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0	0.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0	0.0%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0	0.0%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4	40.0%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2	20.0%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의인 등)	1	10.0%
합	10	100.0%

국방부의 경우, 대부분의 군인 모델과 이미지는 남성, 여성은 간호장교와 행정보직에 한정되어 있다. 간호장교에 임관하는 경우 소개글이 대부분 간호직이라는 역할에 맞추어 돌봄이나 헌신, 덕이 있는 여성 군인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 군인의 지원정책도 보육과 가정양립 지원정책에 한정되어 여성 군인이지만 가정에서의 역할이 또한 부여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전문적인 여성 군인의 이미지 노출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는 군 장교 임관식에 대한 홍보 뉴스에서 사관생도들의 친혈육의 경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령 ○○○ 소위는 ‘6·25전쟁 당시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한 고(故) ○○○ 하사의 외손자이다’ 혹은 ‘아버지와 형에 이어 육군장교로 임관한 ○○○ 소위’라는 방식의 소개글²⁶⁾ 등이 그 예이다. 이는 군 조직 내에서 전형적인 가부장적 혈연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재생산해나가는 방식의 접근이다.

전체 군 인원 대비 여군의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여군에 대한 홍보나 뉴스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여군에게 지원되는 정책도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 차원의 정책으로 한정되어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6) 국방부> 국방소식> 국방뉴스> 해군/해병대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00312/7/BBSMSTR_00000010024/view.do



[그림 19] 국방부 성차별 표현 비율

(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관찰된 성차별 표현은 53건으로 전체 사례 760건 중 7.0%를 차지해, 18개 부처 중 4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표현이 24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표현이 14건(26.4%),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표현이 12건(22.6%)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가족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정상적·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전형적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여성의 모습을 모성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드러내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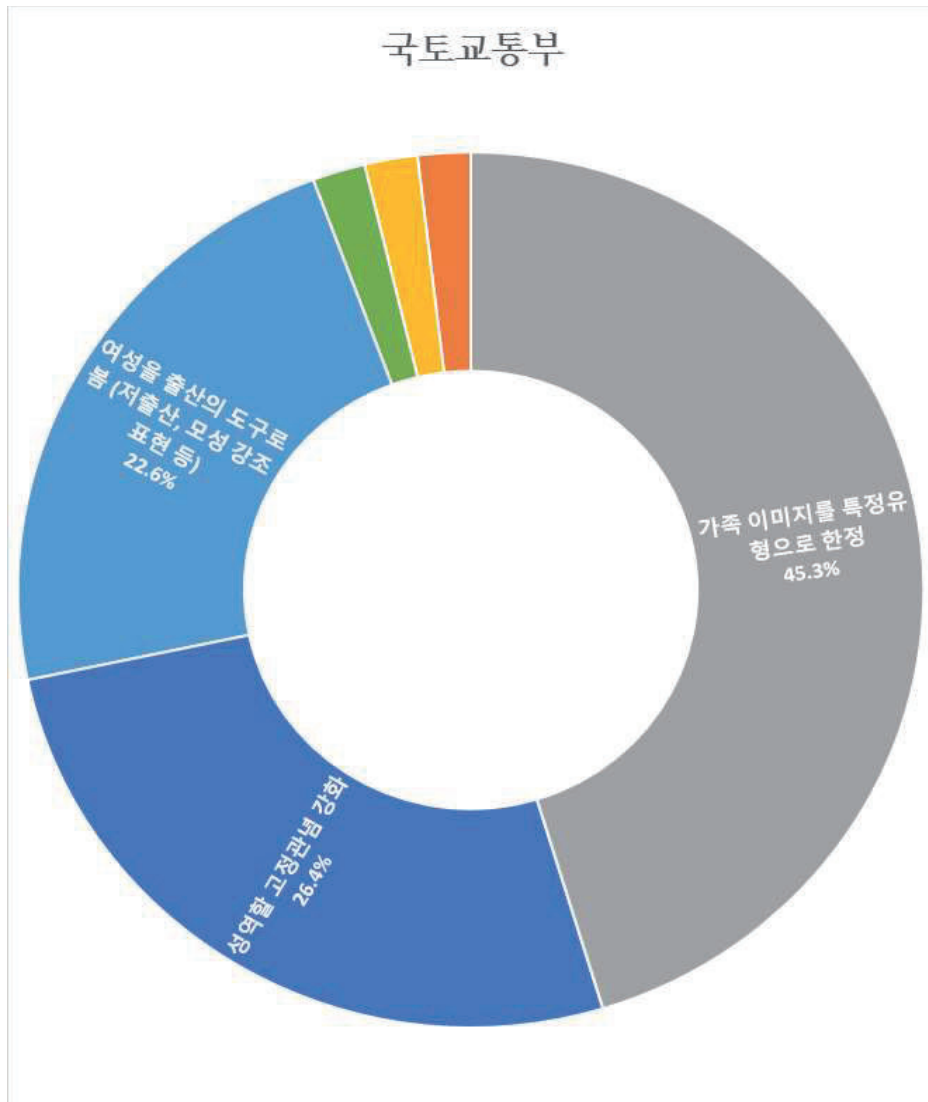
단,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표현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4> 국토교통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14	26.4%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1	1.9%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0	0.0%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0	0.0%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0	0.0%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0	0.0%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0	0.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24	45.3%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0	0.0%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1	1.9%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12	22.6%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1	1.9%
합	53	100.0%

국토교통부의 경우 주거 정책이 부처 담당 정책의 주요 영역임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된 정책 뉴스나 홍보가 다수였고 이러한 정책 홍보에 높은 빈도로 활용되는 것은 3-4인의 고정적인 가족 이미지가 전면에 혹은 배경으로 삽입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이 3인 혹은 4인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하는 미래 청사진에서도 이러한 3-4인 가족 이미지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교통 영역에서는 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홍보가 많았는데, 특히 아동의 통학길이나 횡단보도에서의 모습이 많이 보여진다. 교통약자로서의 아동 옆에는 반드시 여성이 함께 하고 있으며 아이와 여성이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픽토그램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 엄마가 아동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성역할을 고착화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 홍보물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가족이미지의 고정화와 여성의 모성 이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 국토교통부 성차별 표현 비율

(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견된 성차별 표현은 41건으로 전체 사례 760건 중 5.4%를 차지했으며, 이는 18개 부처 중 10번째에 해당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표현이 22건으로 53.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표현이 10건(24.4%),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표현이 6건(14.6%)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는 산업계는 전통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종사자 편차가 큰 만큼, 한쪽 성별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이루어지기 쉽고, 다수 성이 해당 분야를 과다하게 대표할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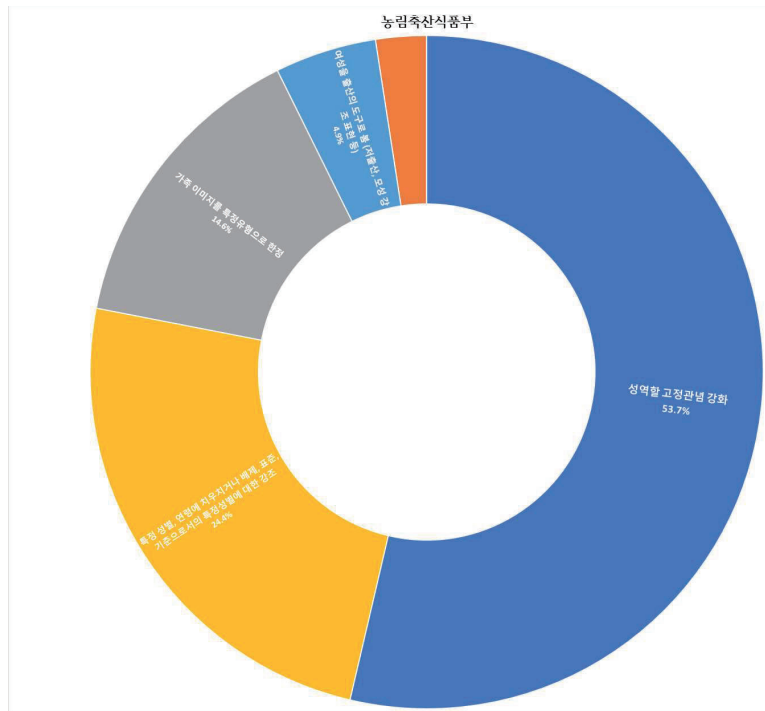
능성도 크다. 사례수로는 타 부처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여러 직종을 묘사하면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드러나거나, 소수 성을 배제하는 방식의 이미지가 사용 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단, 여성다움,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드러나거나, 성차별적 표현이나 비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두드러지게 반영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5> 농림축산식품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22	53.7%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0	0.0%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0	0.0%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0	0.0%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1	2.4%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0	0.0%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0	0.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6	14.6%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0	0.0%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10	24.4%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2	4.9%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0	0.0%
합	41	100.0%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성농업인 농사일 담당 비율은 평균 53.9%, 이 중 농사일의 75%를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이 24.2%(농림축산식품부, 2020)에 달하는 등 해당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데 비하여 정책 홍보물에 그려진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는 한정적인 특성을 보인다. 남성은 육체적 노동을 강조하고 여성은 주로 채소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등, 고정된 성역할적 맥락에서 주변화된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 21] 농림축산식품부 성차별 표현 비율

(9)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확인된 성차별 표현은 32건으로 전체 760건 중 4.2%를 차지했다. 전체 18개 부처 중 14번째에 해당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표현이 13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표현이 6건(18.8%),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표현이 5건(15.6%), 특정 성 비하 및 열등하게 묘사하는 표현이 3건(9.4%)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관련 분야를 안내하면서 남성을 경제 활동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묘사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드러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표 16> 기획재정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6	18.8%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0	0.0%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0	0.0%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3	9.4%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0	0.0%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0	0.0%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0	0.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5	15.6%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0	0.0%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13	40.6%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5	15.6%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0	0.0%
합	32	100.0%

기획재정부의 경우 부 특성상 정책 홍보에 그래프나 통계자료가 많이 활용되어 사례수가 적은 편으로, 성별 이미지가 실린 홍보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깊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제관련 뉴스(경제성과 보고, 경제협약, 경제정책 등)의 대표 이미지 혹은 카드뉴스 첫장에 주로 남성 이미지가 많이 쓰이고 있으며, 특히 남성끼리의 악수 이미지가 많이 쓰이고 있다. 경제성과 보고나 무역협약, 혹은 협상 테이블 등에서 전문 관료직에 남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실제 기획재정부 간부들의 동정 뉴스에도 거의 남성 관료들이 전부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은 주로 양육자와 집안 살림 경제(장보는 이미지) 역할에 고정되어있고, 공식영역의 경제 활동은 남성의 역할에 해당되어 있다.



[그림 22] 기획재정부 성차별 표현 비율

(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52건의 성차별 표현이 관찰되어 전체 사례 760건 중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8개 부처 중 5번째로 높은 빈도이다.

보건복지부에 나타난 성차별 표현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표현이 15건(28.8%),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표현이 12건(23.1%),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이 7건(13.5%),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표현이 6건(11.5%)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과 출산, 보육, 돌봄 관련 정책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주로 작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대상으로 여성의 이미지를 편중되게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출산이나 모성 역할을 강조하거나, 보육과 돌봄의 문제를 여성의 영역으로 보이도록 하는 차별적 표현이 다수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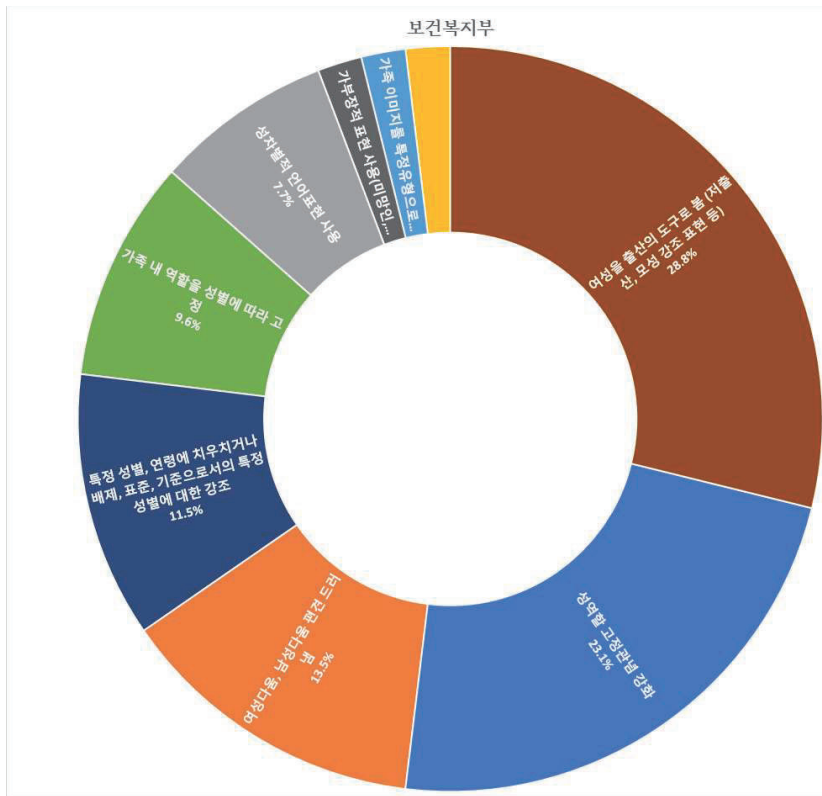
단,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차별 표현이 1건에 그친 것은 긍정적이다. 전통적인 가족 이미지를 되풀이하여 드러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7> 보건복지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12	23.1%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7	13.5%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4	7.7%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0	0.0%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0	0.0%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1	1.9%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0	0.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1	1.9%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5	9.6%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6	11.5%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15	28.8%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의외인 등)	1	1.9%
합	52	100.0%

보건복지부의 경우, 직업과 옷차림, 체형 묘사 등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미지는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았고 직업의 성비도 비교적 균등하게 맞추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그러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복지정보의 대상을 나타내는 픽토그램에 청년, 중장년, 노년을 모두 남성으로, 장애인은 휠체어를 탄 여성, 한부모 가정은 엄마와 함께 있는 자식의 모습으로 표현하였으며 정책 홍보물에는 노인 돌봄, 요양 등에 관련한 직업을 설명하는 맥락에는 대부분 여성이 등장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특정 성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모습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보건복지 영역은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책이 많아 여성의 모성에 과도한 이미지와 의미를 부여하는 불평등한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다수 배치되어 심도있는 성찰이 요구된다.



[그림 23] 보건복지부 성차별 표현 비율

(1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는 10건의 성차별 표현을 발견하였고, 이는 전체 사례 수 760건 중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전체 18개 부처 중에서는 국방부와 함께 가장 적은 사례가 관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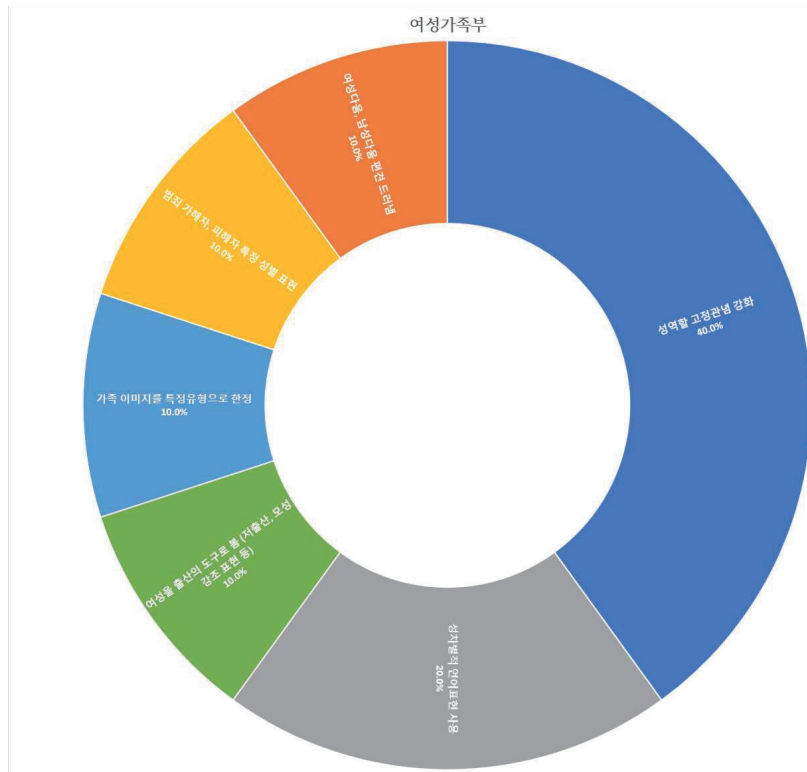
항목별로는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표현이 4건 있었고, 성차별적 언어표현 2건이 확인되었다. 여성가족부의 성차별 표현은 타 부처에 비해 적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적 표현과 상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는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 18> 여성가족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4	40.0%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1	10.0%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2	20.0%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0	0.0%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0	0.0%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1	10.0%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0	0.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1	10.0%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0	0.0%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0	0.0%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1	10.0%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0	0.0%
합	10	100.0%

여성가족부의 경우, 모니터링 사례가 가장 적은 편으로 대체적으로 성평등한 용어 및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부모 외 '양육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있었다. 성을 구분한 이미지 외에 아예 성별을 알 수 없는 (알 필요 없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성가족부 부처의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비인물적 이미지, 사물 등을 정책 홍보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전도적 이미지를 배치하거나, 성비 균형을 맞추고 성차별적 표현과 이미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을 제안하는 등의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속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여성가족부 성차별 표현 비율

(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견된 성차별 표현은 24건으로 전체 사례 760건 중 3.2%에 해당한다. 이는 18개 부처 중 16번째에 해당하는 빈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성차별 표현이 관찰되었다.

항목별로 보면,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표현이 14건으로 58.8%, 여성다움 및 남성다움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이 4건(16.7%),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표현이 3건(12.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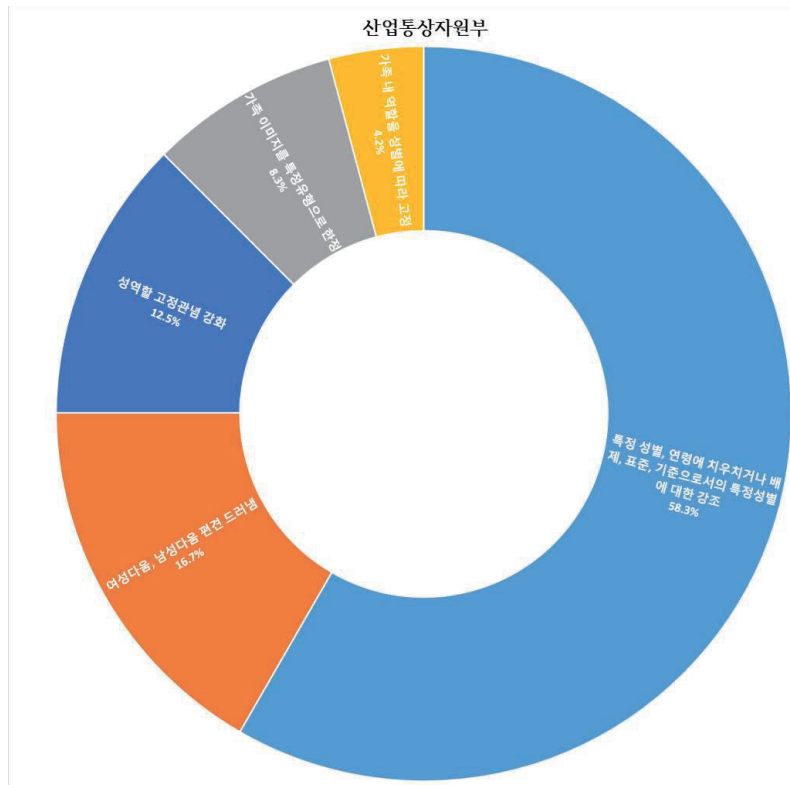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차별 표현의 빈도는 적었지만, 산업 및 통상 영역 종사자의 모습을 남성에게 치중하여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성다움 및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는 게시물들도 확인되어 전통적인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을 다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 산업통상자원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3	12.5%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4	16.7%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0	0.0%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0	0.0%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0	0.0%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0	0.0%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0	0.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2	8.3%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1	4.2%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14	58.3%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0	0.0%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0	0.0%
합	24	100.0%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물, 풍경 등 비인물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인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남성을 대표 이미지로 나타내는 경향이 강했다. 주요 등장인물은 남성이고 여성은 내레이션을 하는 정책홍보 동영상에 대표적인 사례이며, 차별적 사례가 적은 이유는 해당 부처의 정책홍보 자체에서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한 타부처에서는 일반 탭에서 자연스럽게 블로그 등의 SNS나 하위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게시글이 많았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탭에서 SNS로 자동연결 되는 경우가 없어 타부처에 비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25] 산업통상자원부 성차별 표현 비율

(13) 외교부

외교부에서는 34건의 성차별 표현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전체 사례 760건 중 4.5%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외교부는 전체 18개 부처 중 빈도 순으로 12번째 부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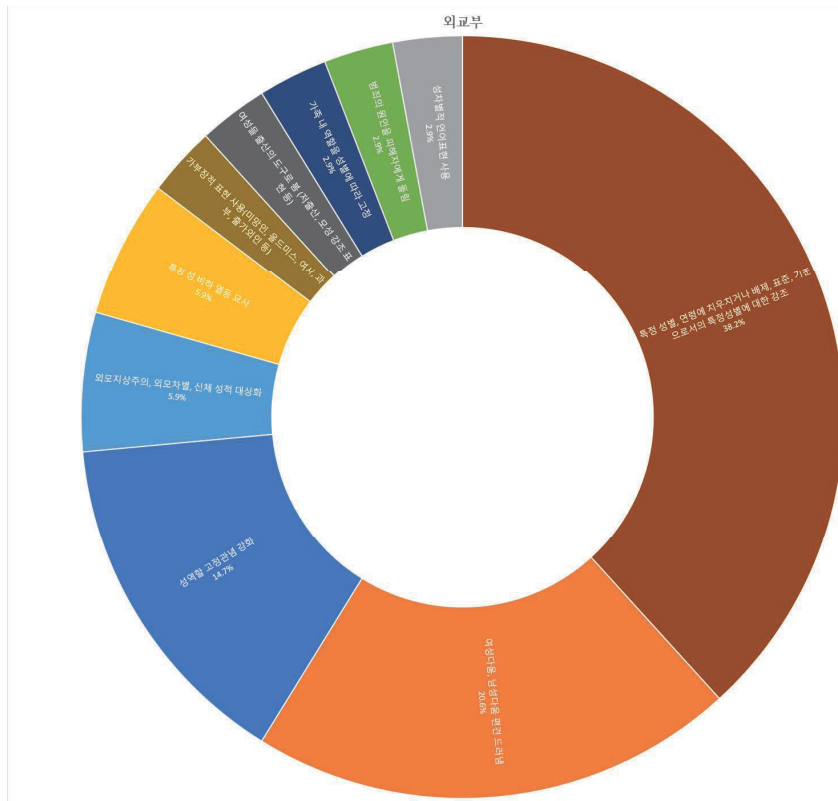
항목별로는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표현이 13건(38.2%),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 표현이 7건(20.6%),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이 5건(14.7%)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외교 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을 남성 중심으로 묘사하거나, ‘여성다움’ 측면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표 20> 외교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5	14.7%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7	20.6%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1	2.9%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2	5.9%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2	5.9%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0	0.0%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1	2.9%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0	0.0%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1	2.9%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13	38.2%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1	2.9%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1	2.9%
합	34	100.0%

외교부의 경우, 부처 홈페이지 구성 특성상 통상의 역사 등 사건의 나열을 중심으로 한 게시글이 많아 성불평등한 사례가 적게 포착된 특징이 있다. 외교부는 공식블로그에 대부분의 정책홍보물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타부처의 성차별적 이미지 노출 경향과 비슷하며 정책홍보물에 나타난 의상이나 회의 석상 참석자의 위치와 성비, 주발언자의 성비 등에서 성 고정관념이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여권사진, 국가 정상 이미지 등은 꾸준히 남성을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26] 외교부 성차별 표현 비율

(14) 통일부

통일부에서 관찰된 성차별 표현은 모두 56건으로 전체 사례 760건 중 7.4%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18개 부처 중 3번째로 높은 빈도이다.

항목별로 보면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표현이 18건(32.1%),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표현이 15건(26.8%),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표현과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이 각각 6건(10.7%)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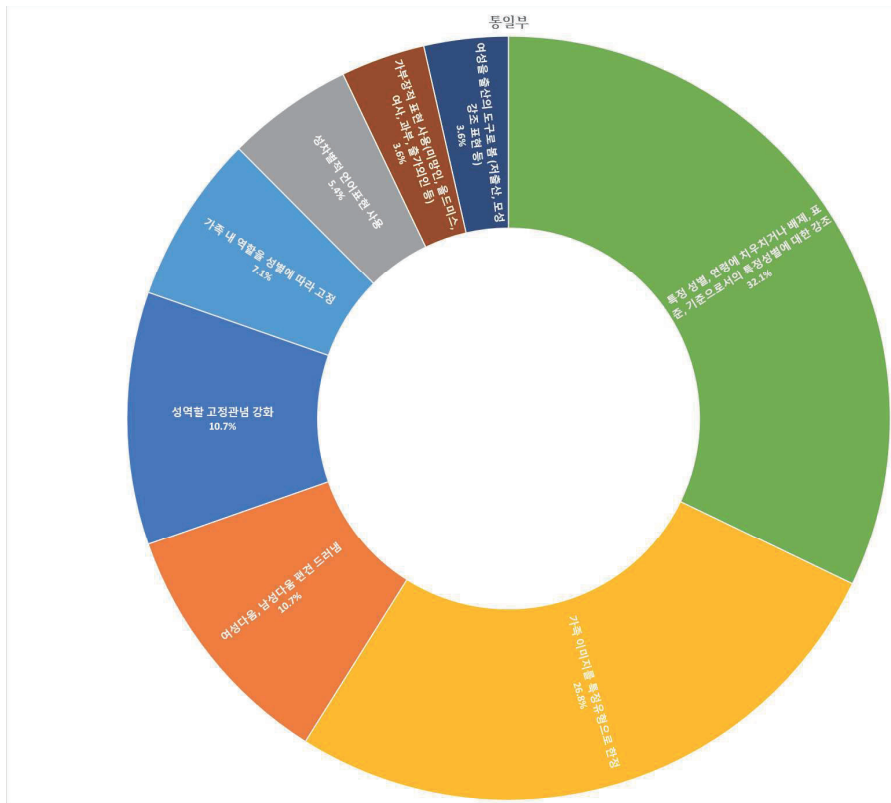
통일부가 제작하는 게시물들에서 가족 및 성별에 따른 편견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변화된 성 역할을 반영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통일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6	10.7%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6	10.7%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3	5.4%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0	0.0%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0	0.0%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0	0.0%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0	0.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15	26.8%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4	7.1%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18	32.1%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2	3.6%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2	3.6%
합	56	100.0%

통일부의 경우, 정책 홍보 관련 게시물에 카드뉴스 등을 제외한 자료에서는 이미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모니터링 사례가 전반적으로 많이 누적되지는 않았으나 카드 뉴스에 활용된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는 다른 부처들이 드러내는 경향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통일부에서는 정책이나 현상을 설명할 때 중후한 남성이 전문가로 등장하고 여성이 학생이나 청자로 등장하여 모르는 내용을 알게 되는 구도가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또한 남북관계를 남성 형제 이미지로 드러내 남과 북의 이미지 표상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도 통일부 정책 홍보 이미지의 대표적 성고착화된 텍스트-이미지 활용 방식이다 실제 사전적 의미의 형제는 형과 아우를 아울러 이르는 것을 포함하여 자매와 남매, 형제 모두를 통틀어 이르는 표현임에도 통일부의 형제 이미지는 남성과 남성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그림 27] 통일부 성차별 표현 비율

(1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8개 부처 중 성차별 표현이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 부처이다. 중기부에서 관찰된 성차별 표현은 모두 107건으로 전체 사례 760건 중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성차별 표현이 두 번째로 빈번한 법무부 사례(62건)의 1.7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표현이 85건으로 79.4%를 차지해 이 항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표현이 15건(14.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표현이 3건(2.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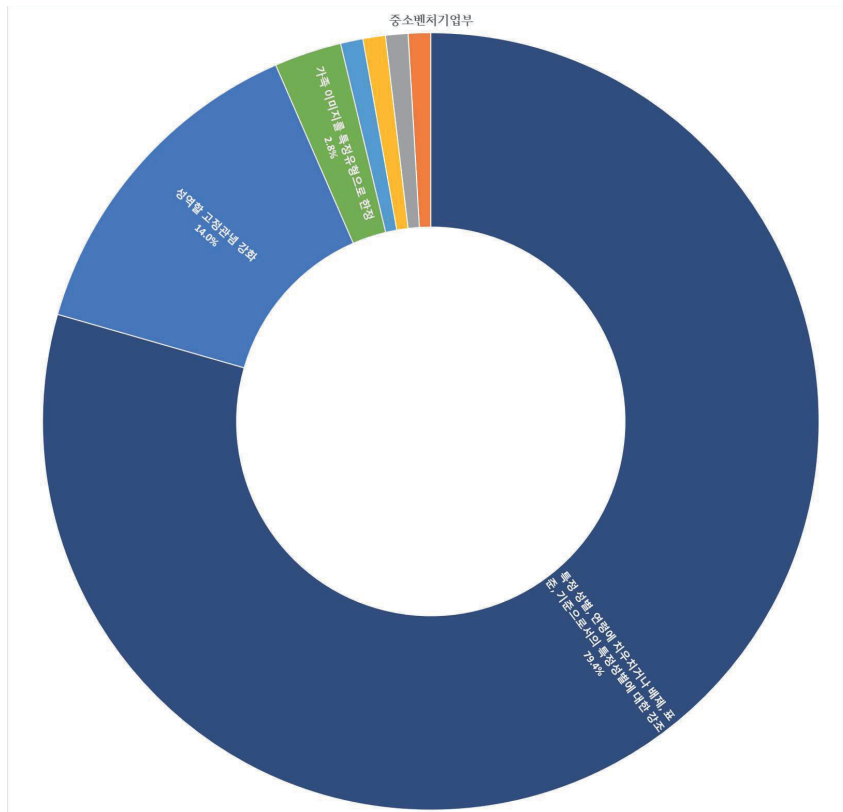
중기부가 주로 게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홍보물에서 기업 종사자에 대한 다수 이미지가 성차별적인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각 성에 대한 역할과 성격에 대한 편견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 22>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15	14.0%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1	0.9%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1	0.9%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1	0.9%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0	0.0%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0	0.0%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1	0.9%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0	0.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3	2.8%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0	0.0%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85	79.4%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0	0.0%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0	0.0%
합	107	100.0%

중소기업 벤처부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여성 혐오 표현은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넥타이 맨 남성’이 거의 모든 인물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성차별적 이미지의 양상이 매우 확연히 드러나는 경향을 보인다.

고용인, 피고용인, 구직희망자 등 정책의 대상과 이를 만드는 전문가의 기본형이 남성으로 고정되어 있고 여성은 여성 기업 등 여성 특화 정책 맥락에서만 등장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 등장하더라도 굉장히 불균형한 성비로 등장하는데, 정책 홍보게시물에서 전체 인물이 지속적으로 남성이 대다수, 여성이 극소수인 비율로 노출되고 있다.



[그림 28] 중소벤처기업부 성차별 표현 비율

(1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서 관찰된 성차별 표현은 34건으로 전체 사례 760건 중 4.5%를 차지해, 해양수산부는 18개 부처 중 빈도수 기준 13번째에 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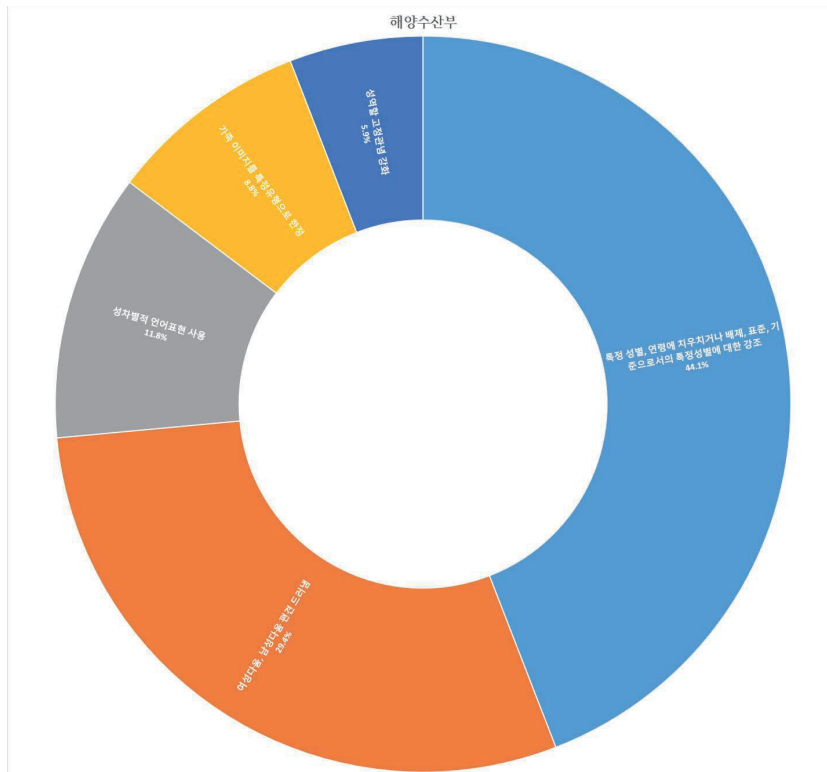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에서 나타난 성차별 표현 중에서는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표현이 15건(44.1%),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이 10건(29.4%)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성차별 표현 사례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긍정적이나,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를 묘사하면서 남성을 표준으로 하거나,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여 주의가 필요했다.

<표 23> 해양수산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2	5.9%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10	29.4%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4	11.8%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0	0.0%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0	0.0%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0	0.0%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0	0.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3	8.8%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0	0.0%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15	44.1%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0	0.0%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0	0.0%
합	34	100.0%

해양수산부의 경우, 부처 홈페이지 게시물의 총량이 타부처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며 부처 특성상 물고기나 바다 풍경 등 비인간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모니터링 대상이 적은 편이었다. 성별이 드러나는 인물 이미지보다는 비인물적 대상을 이미지화하여 상대적으로 사례수가 적은 것이었으나 어업 종사자를 그릴 때에는 대부분 남성으로 묘사되었다.



[그림 29] 해양수산부 성차별 표현 비율

(17) 환경부

환경부에는 모두 47건의 성차별 표현 게시물이 있었으며, 이는 전체 사례 760건 중 6.2%에 해당한다. 18개 부처 중에서는 성차별 표현이 6번째로 많은 부처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표현이 21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표현이 11건(23.4%),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표현이 7건(14.9%)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관장하고 있는 행정 분야에 성 차별적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성차별 표현이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관련 정책의 홍보나 설명 자료 등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이나 가족 이미지를 무비판적으로 반복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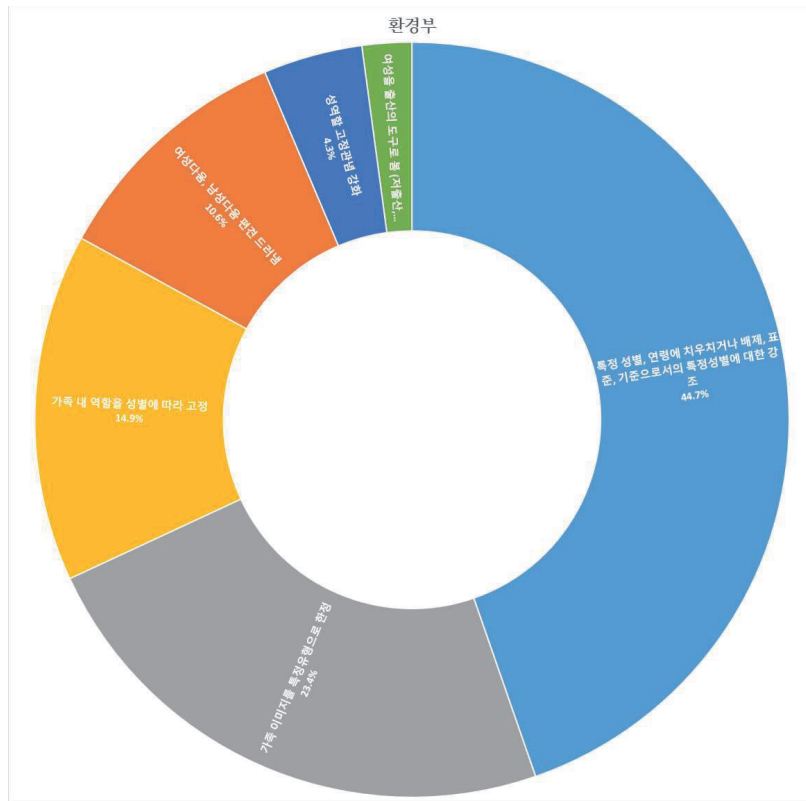
<표 24> 환경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2	4.3%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5	10.6%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0	0.0%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0	0.0%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0	0.0%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0	0.0%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0	0.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11	23.4%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7	14.9%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21	44.7%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1	2.1%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0	0.0%
합	47	100.0%

환경부의 경우,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환경만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정책을 홍보하는 편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비 균형을 맞추고 성고착화된 이미지를 재생산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또한 정책 홍보물은 아니지만 환경 관련 주요 인물을 홍보²⁷⁾하며 여성과 남성 인물 비율 균형을 맞추고, 성별 이미지를 강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물을 그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 측정평가, 환경 정책 설명 및 홍보 등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거의 남성으로 대표되었다. 환경부 특성상 자연물, 동물 등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정책홍보물 외 인물이 사용되는 경우에 전문가 뿐 아니라 근로자의 이미지에도 대부분 남성을 배치해 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을 강조하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27) 환경부> 알림/홍보> 홍보자료> 지구의 초상
<http://me.go.kr/home/web/board/list.do?maxPageItems=6&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boardMasterId=752&menuId=10473&boardCategoryId=&condition.hideCate=&condition.createDeptCode=&condition.createDeptName=&condition.fromDate=&condition.toDate=&order=&condition.createId=&decorator=&pagerOffset=42>



[그림 30] 환경부 성차별 표현 비율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관찰된 성차별 표현은 모두 46건으로 전체 사례 760건 중 6.1%를 차지했다. 이는 18개 부처 중 성차별 표현이 빈번한 순서로 7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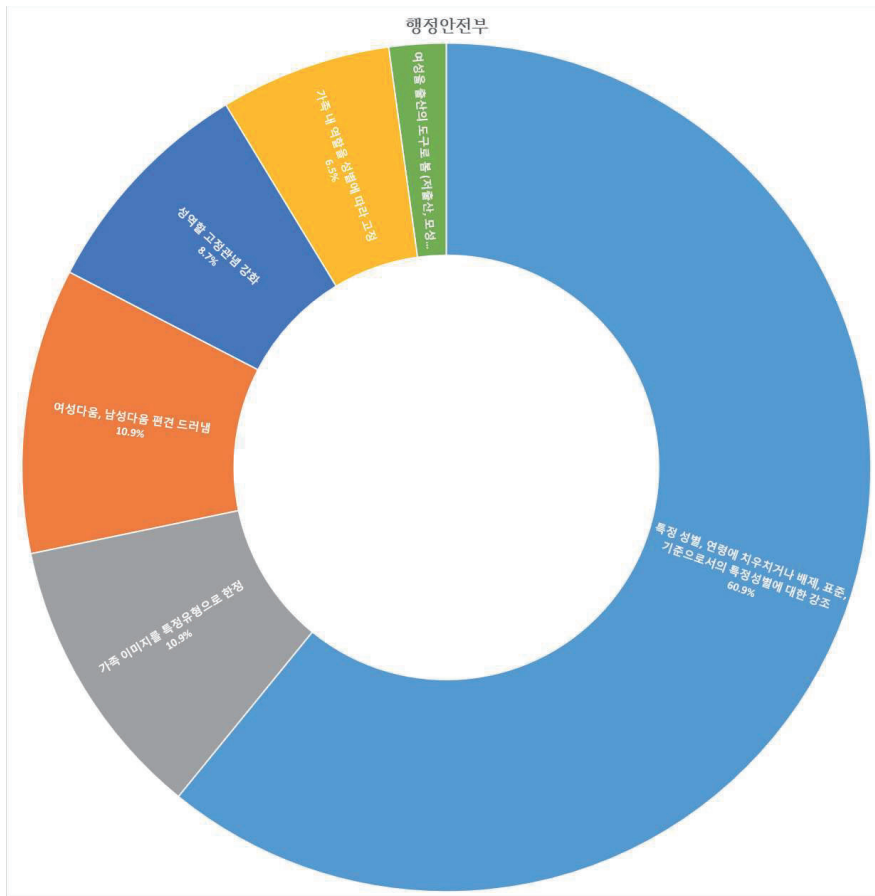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역시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하는 표현이 28건(60.9%)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다움,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과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표현이 각각 5건(10.9%)이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게시물에서도 국민 일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남성이 표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미지가 다수 활용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을 되풀이하는 차별적 표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단, 성차별적 언어표현이나 구시대적 표현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요소이다.

<표 25> 행정안전부 성차별 표현 현황

항목	사례수	비율(%)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4	8.7%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5	10.9%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0	0.0%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0	0.0%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0	0.0%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0	0.0%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0	0.0%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0	0.0%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5	10.9%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3	6.5%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28	60.9%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1	2.2%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0	0.0%
합	46	100.0%

행정안전부의 경우, 부처가 생산해내는 홍보물이 타부처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홍보물 중 여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흡수로 인물이 등장할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등장하고 남성이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 편으로 타부처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그림 31] 행정안전부 성차별 표현 비율

2. 성차별 표현 사례별 분석

1)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근로자를 현장 남성 근로자만으로 표현²⁸⁾한 고용노동부의 이미지, 성별화된 직업 고정관념²⁹⁾을 드러낸 교육부의 이미지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를 모두 남성으로 등장시키고, 소방안전과·자동차과·전기전자과에 진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의 이미지를 모두 남성으로 등장시키며 직업 영역에 있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을 드러내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32]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이미지(고용노동부)

28) 뉴스소식>카드뉴스> 세계 11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근로자의권리는 과연 몇 위?",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81100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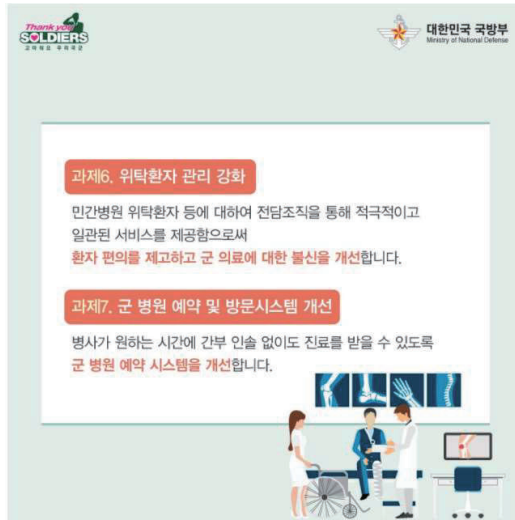
29) 뉴스홍보>홍보마당>[카드뉴스] 뜨는 직업계고 이색학과 어디?,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0&boardSeq=83028&lev=0&searchType=S&statusYN=W&page=2&s=moe&m=020201&op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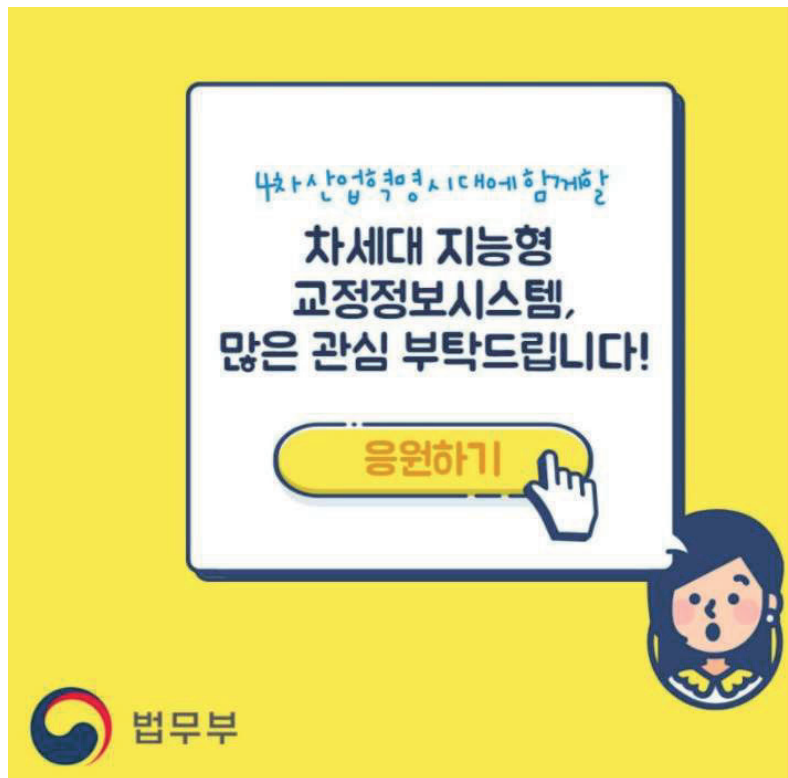
[그림 33]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이미지(교육부1)

법무부 블로그의 경우, 교정정보시스템을 홍보하며 콜센터, 상담사를 연상시키는 직업 이미지에 머리를 내려뜨리고 귀걸이를 한 여성 이미지³⁰⁾를 부각시켰다. 국방부의 2017-2021 군보건의료발전계획 카드뉴스에는 여성이 간호사로, 남성이 의사로 표현된 것 외에도 간호사라는 직업군과 관련 없이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신체 굴곡을 강조한 자세로 하이힐을 신고 혈체를 잡고 있는 모습으로 여성을 묘사하였다.

30) 블로그>법동네 이야기>차세대 지능형 교도소가 눈앞에?,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1910967904>



[그림 34]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 관념 이미지(국방부)



[그림 35]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 관념 이미지(법무부)

이 외에도 서비스 업종 종사자 대부분을 여성으로 표현하고 화학, 자동차, 전기, 기술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남성으로 표현하는 성 고정관념에 근거한 이미지 활용 사례 다수가 발견되었다.

또한 노인이나 아동 ‘돌봄’의 주체를 대부분 여성으로 표현하는 점이 눈에 띄었다. 어린이집

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돌봄을 담당하는 존재를 여성으로 대표함으로써 고정화된 직업적 성차별 표현을 찾아낼 수 있었다. 아동 양육-돌봄 노동의 주체로는 여성, 임금 근로 현장에는 남성을 대비시키는 이미지도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농산물꾸러미 가정 배송 홍보에 활용된 가정 구성원에 아동과 여성의 이미지³¹⁾를 배치하여 가정이 곧 여성인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고교학점제에 대한 카드뉴스에서 교원과 대입 관계자는 남성, 학부모는 여성으로 표상³²⁾하여 성고정관념을 드러낸 경우 등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였다.



[그림 36]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이미지(교육부2)



[그림 37]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여성을 의존적, 부수적, 주변적 존재로 묘사>

공공 홍보물에 여성이 의존적, 부수적, 주변적 존재로 묘사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화재상황이나 재난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을 남성으로 표현³³⁾하거나 회사 중역과 회의 진행자는 남성, 복사하는 사람은 여성으로 표현하여 여성을 주변화³⁴⁾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31) 규제개혁>규제혁신홍보자료>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https://www.mafra.go.kr/mafra/1262/subview.do>

32) 뉴스홍보>홍보마당>[카드뉴스] 수강신청, 나만의 시간표! 대학생이냐고? 아니! 나 고등학생..<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0&boardSeq=83593&lev=0&searchType=S&statusYN=W&page=2&s=moe&m=020201&opType=>

33)뉴스소식>홍보자료>인포그래픽,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15&nttId=73736

34) 블로그>법동네 이야기>202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 당연한 권리 챙겨주세요!,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2227819885>

○ 주요 내용

1 공공·민간시설 초기대응 및 대피훈련 강화

- 종합병원, 대형마트, 여객선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초기대응훈련 집중 실시*
 - 전국 다중이용시설 714개소 훈련 참여
- 중앙부처별 소관시설에 대해, 화재·지진 등의 재난상황을 가정해 매뉴얼에 따라 시설자체 대피(대피유도)훈련 실시
 - 어린이집 37,381개, 관광숙박시설 2,111개, 의료기관 223개, 전통시장 12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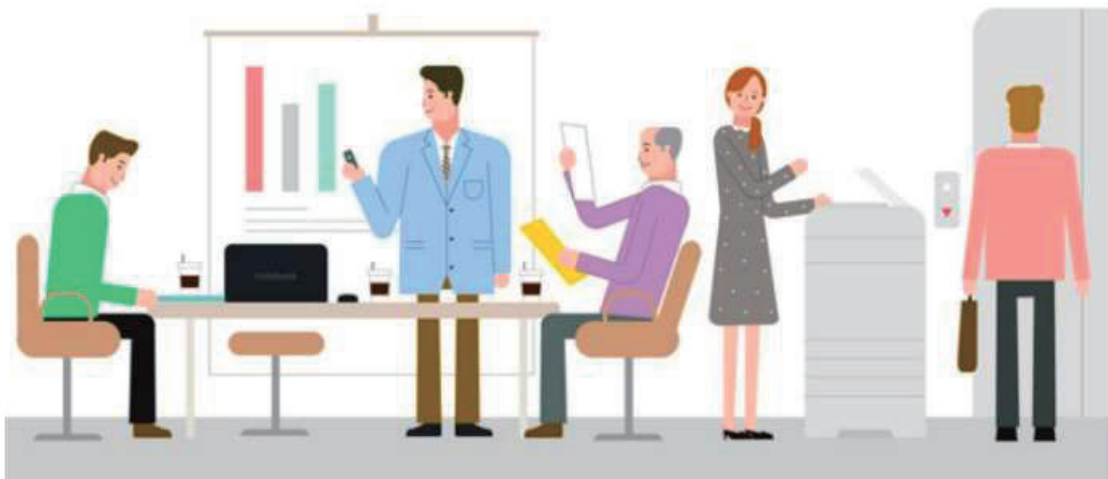


2 재난취약시설 화재 대피훈련 집중 실시

-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 구조상 화재에 취약한 목욕탕 등 화재취약시설 집중 훈련*
 - 전국 화재취약시설 321개소 훈련 참여
- 소방서 합동 화재 대피훈련뿐만 아니라, 자체 화재 대피(대피유도)훈련 실시*
 - 시군구별 2곳 이상 대피훈련 실시



[그림 38] 여성을 의존적, 부수적, 주변적 존재로 묘사(행정안전부)



[그림 39] 여성을 의존적, 부수적, 주변적 존재로 묘사(법무부)

이 외에도 재판 상황을 묘사하며 판사 및 상황을 진행하는 존재는 남성, 앉아서 모니터를 보는 부수적인 존재는 여성으로 표현³⁵⁾하거나 면접관 전체 인원이 남성으로 표현된 이미지, 남성은 가르치고 여성은 배우는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반영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35) 중소기업 ombudsman>개선성과>주요성과, https://www.osmb.go.kr/board/report_detail.jsp



[그림 40] 여성을 의존적, 부수적, 주변적 존재로 묘사(중소벤처기업부)

<고정된 여성 이미지 강조(치마, 핑크색, 속눈썹 등)>

눈에 띄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 강조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여성성에 대한 표상으로 드러났다. 주로 화장한 얼굴을 나타내는 말아 올려진 속눈썹, 치마, 핑크색 의상, 귀걸이나 목걸이, 과하게 치장된 레이스 의상 등의 착용이 그 예이다. 특히 성별을 구별하기 위한 고정적인 패턴의 색 사용은 아주 높은 빈도로 발견되는데, 남성은 푸른 톤, 여성은 붉은 톤의 의상으로 구분하는 전형성은 여러 부처에 걸쳐 고루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림 33] 고정된 여성 이미지 강조 사례(교육부)



[그림 42] 고정된 여성 이미지 강조 사례(고용노동부)



[그림 43] 고정된 여성 이미지 강조 사례(국토교통부1)



[그림 44] 고정된 여성 이미지 강조 사례(국토교통부2)

고용노동부의 면접전략에 대한 가이드 게시물³⁶⁾에서는 면접관을 사로잡는 면접의 기본 5가지를 명시하며 바람직한 면접 복장의 예시를 제시한다. 여성 면접자의 경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상에 악세사리, 메이크업, 치마, 힐을 이미지로 표현하여 성별고정화된 면접 복장을 제시하였다.

36) 워크넷 홈>직업진로>취업가이드>면접전략, <https://www.work.go.kr/empSpt/empGuide/empTrend/interviewGuide.do?pageCode=11>

○ 면접 복장 예시

머리

- 신뢰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이마와 귀가 보이도록 단정하게 정리

얼굴

- 자신의 피부 톤에 맞는 색상으로 메이크업
- 겹침은 보완하면서 깔끔하고 생기 있는 연출

구두

- 복장과 어울리는 어두운 색 계열 선택
- 통굽, 샌들, 오픈 투슈즈는 피하기
- 구두는 깨끗하게 닦아서 준비



복장

- 기업과 직무 특성에 어울리는 스타일과 색상 선택
- 자신의 몸에 잘 맞는 깔끔한 정장 착용
- 흰색 셔츠에 단색 정장이 무난하고 광택이나 무늬가 많은 것은 피하기

기타

- 정장에는 물ље계통의 경장양말 착용 (발목양말 지양)
- 손목시계나 작고 단정한 것 정도의 장신구만 착용
- 넥타이는 적당한 폭에 단정한 색상 또는 회사의 상징적인 색상 착용

[그림 45] 고정된 여성 이미지 강조 사례(고용노동부)

- 여성다움·남성다움 편견 드러냄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적 편견을 드러내는 것은 대부분 여성에 대한 편견을 부각하는 것으로 대표된다는 특징을 보였다. 주로 통일부에서 북한말에 대한 카드뉴스에서 다이어트 주체를 여성으로 표현³⁷⁾하거나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의 효능에 대해 언급하며 다이어트를 여성의 전유물로 부각하는 유형³⁸⁾, 여성의 업무적 특성을 세밀함, 섬세함이라고 특정하는 인터뷰 내용의 노출, 특정 음식을 ‘여성’의 피부에 좋다고 강조함으로써 피부 관리가 여성의 전유물인 것으로 언급하는 유형, 남성은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여성은 애교있는 추임새를 넣는 존재로 표현하는 편견을 드러내는 유형³⁹⁾, 위기상황에서 남성은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고 해결하고 여성은 등장하지 않거나 수동적으로 대피해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유형⁴⁰⁾ 등을 찾아볼

37)통일소식>카드뉴스,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card/?boardId=bbs_0000000000000002&mode=view&cntId=54028&category=%EB%B6%81%ED%95%9C%EB%A7%90%20%EC%96%B4%EB%94%94%EA%B9%8C%EC%A7%80%20%EC%95%8C%EA%B3%A0%20%EC%9E%88%EB%82%98%EC%9A%94?&pageIdx=22

38) 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1177&searchSelect=content&searchValue=%EC%97%AC%EC%84%B1&boardKey=10&menuKey=971¤tPageNo=4>

39) 환경부, 발행물>소책자

<http://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2.do?fileId=25739&fileSeq=1&fileName=02cbe80dbf2710b9209383edeed724b311598d616211b9cb4ca7ed1c3af7e5abf2edcfedf069048834db3fe6f29e09aa&openYn=Y>

40) 행정안전부,

정책자료>간행물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19032803463264121&rs=synapFile/202105/&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1903280346

수 있었다.



[그림 46] 여성다움, 남성다움 편견 드러내는 이미지(통일부)

2)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성차별적 언어표현은 굳이 성구분이 필요 없는 단어에 ‘여’를 붙이는 유형, 조부모-외조부모, 등으로 가족구성원을 구분하는 유형 등으로 드러났다. 성구분이 필요 없는 단어에 ‘여’를 붙여 표현한 예는 보도자료에서 다이버를 언급하며 ‘여성 다이버’로 표현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인 해양수산부의 게시물⁴¹⁾, 탈북민이며 대학생인 대상을 언급하며 굳이 ‘탈북여대생’으로 표현한 통일부의 보도자료⁴²⁾ 등 ‘여성가장’, ‘여의사’, ‘여대생’등 맥락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도 여성을 강조하여 기존의 가장, 의사, 대학생, 다이버 등의 존재가 남성을 기본

3264121%26rs%3D%2FsynapFile%2F202105%2F&synapMessage=%EC%A0%95%EC%83%81

41) 해양수산부, 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27781&searchSelect=content&searchValue=%EC%97%AC%EC%84%B1&boardKey=10&menuKey=971¤tPageNo=2>

42) 통일부,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자료실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12&mode=view&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cntId=18093&category=&pageIdx=4

형으로 상정하고 부가적으로 여성의 존재를 구분하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통일부장관, 탈북여대생이 그린 초상화전 축하

작성일: 2011-03-07

조회수: 14282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3월 7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대로비에서 열린 박선영 의원 주최 '탈북여대생 장신영이 그린 초상화전'에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직은 더 배려하고 보살펴 주어야 할 때이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통일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몽준 의원, 남경필 의원, 권영세 의원, 홍사덕 의원, 나경원 의원, 김을동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과 한국화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그림 47]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 이미지(통일부)

-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특정 성에 대한 비하, 열등 묘사 항목은 여성을 순종적이고 미성숙한 존재로 표현하거나, 여성을 클럽 죽순이 등으로 표현한 기획재정부의 정책홍보 웹툰과 같은 사례⁴³⁾, 뒷담화를 전하고 듣는 존재로 여성을 표현한 법무부의 이미지와 같은 사례⁴⁴⁾, 우울, 무력한 상태를 묘사하며 여성의 이미지를 넣거나 위로가 필요한 대상에 여성 이미지를 활용한 사례 등이 눈에 띄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교육 홍보 카드뉴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 동화 내용을 차용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을 '공주'로 표현하여 여성을 도움과 관찰이 필요한 존재로 상정하고, 귀걸이와 볼터치 등의 꾸밈 등 성고정관념을 반영한 존재로 규정하여 보다 세심한 문제의식이 요구되었다.

43) 기획재정부, 뉴스>정책홍보마당>웹툰>아싸!달콤한 인생,
https://www.moef.go.kr/nw/mosfnw/detailWebToonView.do?searchNttId1=MOSF_000000000029333&menuNo=4040701

44) 법무부, 블로그>법동네 이야기>뒷담화도 죄가 될까?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1906006228>



[그림 48]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이미지(법무부)



[그림 49]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이미지(고용노동부)

웹툰은 최근 부처별로 많이 활용하는 정책 홍보 방식으로 보였는데, 웹툰 대사나 이미지에

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는 장면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었다. 웹툰의 경우 접근성이 높고 정책 홍보 카드뉴스들보다 대중적인 특성을 띄기 때문에 담당 부처의 경각심이 특별히 요구되는 정책 홍보 수단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50]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 이미지(기획재정부)

-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정부 부처 공공 홍보물에 여성의 신체는 피해자로 묘사되는 경우에도 성적 대상화되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간호장교에 대한 거리낌 없는 외모 평가⁴⁵⁾, 지역의 특징점을 꼽는 중에 여성

45) 국방부, 국방소식>국방콘텐츠>카드뉴스>[군타이거 국방뉴스] 국군간호사관학교편.
https://www.mnd.go.kr/user/boardList.action?boardId=I_4492133&siteId=mnd&page=8&search=&column=&boardType=02&listType=&parent=&boardSeq=I_7932605&command=albumView&chkBoxSeq=&chkBoxId=&chkBoxPos=&chkBoxDepth=&chkBoxFamSeq=&warningYn=N&categoryId=&categoryDepth=&id=mnd_020701000000

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언급⁴⁶⁾하는 인터뷰를 가감 없이 게시하는 등 사례수(760건 중 8건)가 많지 않더라도 성차별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법무부의 블로그 게시물에 활용된 이미지는 피해자인 여성의 신체 노출 이미지를 자극적으로 노출하였다. 성적대상화에 대한 고려 없이 게시된 대표적인 이미지로, 다양한 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사례로 보인다.



[그림 51]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 이미지(법무부)

46) 외교부.뉴스공지>연설기고인터뷰>기고인터뷰,
https://www.mofa.go.kr/www/brd/m_4096/view.do?seq=304279&srchFr=&srchTo=&srchWord=%EC%97%AC%EC%84%B1&srchTp=1&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

3)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범죄 가해자, 피해자를 특정 성별로 표현하는 것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 그리고 이를 이미지화하는 것에는 아주 신중한 관점이 요구된다. 다음 [그림 52] 여성가족부의 아동성폭력 피해자 이미지, [그림 53]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의 이미지와 같이 정책의 대상자와 수혜자를 적시하는 것 또한 공공 홍보물의 주요한 목적이겠으나 이 정책이 범죄의 피해자군을 특정해야 한다면 조금 더 심도있고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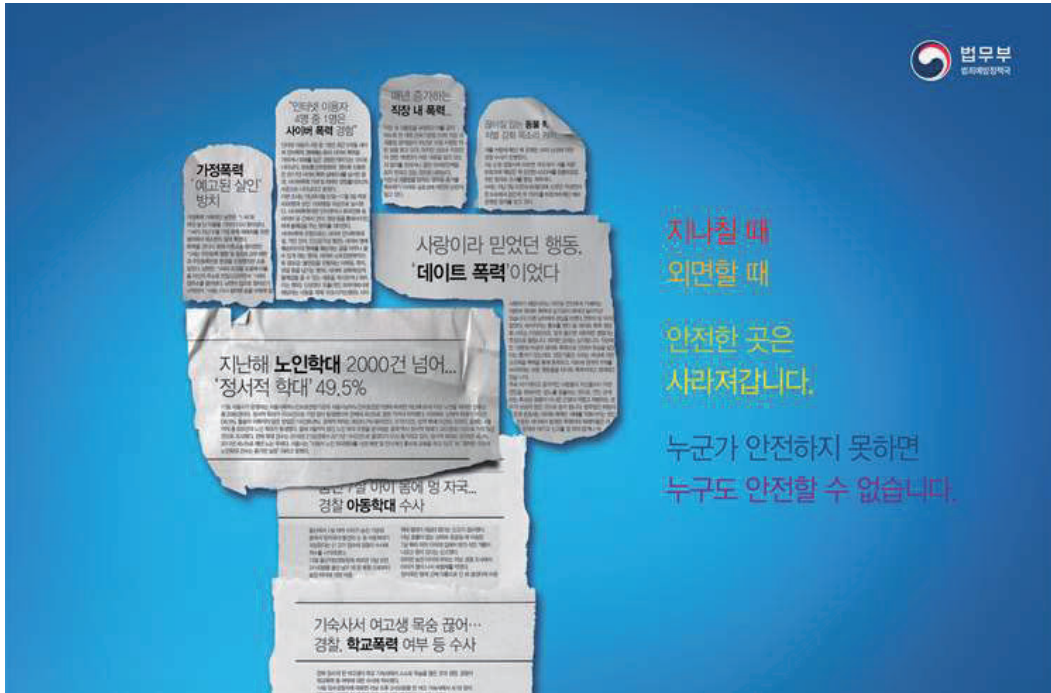
[그림 52]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이미지(여성가족부)



[그림 53]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 이미지(법무부)

-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을 사소하게, 개인간의 문제로 가정하는 관점은 사회적 사건을 명명하는 방식에 쉽게 충분한 성찰 없이 적용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데이트 폭력'으로, 연인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을 일컫는 말과 그 활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데이트 폭력은 (전)연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성폭력, 상해 등의 폭력 행위를 '데이트'라는 서사를 부여해 그 심각성을 희석하고 포커스를 빗나가게 만들 수 있는 용어이다. 다음 [그림 54]와 같은 법무부의 다양한 폭력에 대한 포스터에도 '사랑이라 믿었던 행동'으로 데이트 폭력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폭력과 폭력이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게 하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가해자 입장에서 폭력 행위를 표현하여 사회적 범죄를 사사로운 층위로 치환하는 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4]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간 문제로 가정 이미지(법무부)

-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유형의 성차별 표현은 많이 눈에 띄는 유형은 아니었으나 외교부의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에 활용된 카툰⁴⁷⁾에서 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해외여행 시, 도난 분실을 당했을 때 대처 방식을 언급하기 위해 파리 여행을 간 여성을 네컷 만화로 표현하였는데, 해외에 나간 여성이 전형적인 ‘캣콜링(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향해 휘파람 소리를 내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를 관심으로 인지하고 까르르 웃다가 도난 분실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예시를 들어 외교부의 업무를 홍보하였다. 그리고 이런 전형적인 수법에 당하지 않기를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캣콜링을 관심으로 인지하기보다는 해외에서 경험하는 불쾌한 성희롱 경험으로 인지하는 것과는 상반된, 범죄의 원인에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비중을 배치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게시물로 보인다.

47) 외교부, <https://www.0404.go.kr/country/manual.jsp>



[그림 55]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 이미지(외교부)

4)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

<3-4인 가족 이미지를 정상가족으로 표현>

현재 한국의 1인가구, 2인가구 비율은 가파른 추세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반드시 1인가구나 비혼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더라도, 정부 공공 홍보물에 활용되는 '가족'표상이 '엄마, 아빠, 아이' 혹은 '엄마, 아빠, 아이1, 아이2'로 대표되는 3인가구, 4인가구로만 대표된다면 가족 이미지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성차별 표현 유형(전체 760건 중 108건 /14.2%) 3-4인 가족 이미지를 정상가족으로 표현하는 사례는 전체 108건 중 104건(96.3%)에 달했다.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홍보 카드뉴스⁴⁸⁾에 유치원 선생님은 여성, 가족의 유형

은 지속적으로 3인 가족이 등장한다. 그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총 15개 부처에서 3-4인 가족 이미지를 가족 이미지로 대표하는 사례를 꾸준히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3인 가족의 경우, 엄마, 아빠, 아들, 4인 가족의 경우 엄마, 아빠, 딸, 아들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56]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이미지(교육부)



[그림 57]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한부모 가족을 엄마와 자녀 관계로 한정>

한부모 가족을 표현할 때도, 한부모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한부모 가족을 ‘엄마’와 딸, 아들로 한정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48) 교육부, 뉴스홍보>홍보마당>[카드뉴스] 더 깨끗하고 투명한 사립유치원 만들기 대작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0&boardSeq=83776&lev=0&searchType=S&statusYN=W&page=2&s=moe&m=020201&opType=>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 자녀양육 여건 개선 및 자립지원 강화-2019년 달라지는 점
2019-01-2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여건 개선 및 자립지원 강화
2019-01-23



육아 공백, 아이돌봄서비스로 해결하세요!
2019-01-18

[그림 58]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이미지(여성가족부)

<맥락에 맞지 않는 이성애 결혼 이미지 표현 다양성 무시>

교육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는 2021년 사회정책 홍보 카드뉴스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고령인구 증가, 지역 균형 발전, 가구구조 변화 대응을 설명하면서도 정책의 특성과 목적을 깊게 고려하지 않은 이미지 활용이 포착되었다. 1인가구와 비혼가구 등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맥락에 맞지 않는 이성애 결혼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 눈에 띄는데, 성별, 이성애,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분별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9]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이미지(교육부)

-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한 성차별 표현 유형은 돌봄 노동의 주체로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사례들이 주를 이루었다. 가정에서 노동하는 여성의 이미지, 학부모 대표로서의 여성 이미지⁴⁹⁾,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보육을 담당하는 여성 이미지⁵⁰⁾, 장보기 및 택배 수령하는 여성 이미지⁵¹⁾, 유연근무를 하더라도 육아를 하며 동시에 근무하는 여성 이미지⁵²⁾가 수없이 발

49) 교육부, 뉴스홍보>홍보마당>홍보자료>[포스터] 긴급돌봄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0&boardSeq=79892&lev=0&searchType=S&statusYN=W&page=66&s=moe&m=020201&opType=>

50) 교육부, 뉴스홍보>홍보마당>홍보자료>[카드뉴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여름철 학교생활 안내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0&boardSeq=80873&lev=0&searchType=S&statusYN=W&page=50&s=moe&m=020201&opType=>

51) 법무부, 블로그>법동네 이야기>배달음식도 원산지와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2178065686>

52) 고용노동부, 뉴스소식>카드뉴스>[인포그래픽]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더욱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80600256

견되었다.



[그림 60]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이미지(교육부)



[그림 61]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이미지(교육부2)



[그림 63]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이미지(법무부)

4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 유연근무 활용 1인당
수 5~1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유연근무제 매뉴얼 제작-배포

[그림 62]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이미지(고용노동부)

공공 홍보물에 ‘엄마’를 명시하여 돌봄 노동의 주체로서의 여성으로 한정하고 양육을 여성에게 부과하는 사례, 양육지원 안내서 제목을 ‘초보엄마’로 한정하여 양육의 주체로서의 여성을 강조하는 사례⁵³⁾ 등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아래 통일부 정책 홍보 게시물⁵⁴⁾에서와 같이

53) 통일부,

통일소식>보도자료,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4&mode=view&cntId=54809&category=&pageIdx=1

54) 통일부, 통일복스>자료실,

https://unikorea.go.kr/books/archive/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043&mode=view&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cntId=19636&category=&pageIdx=13

부부사이로 보이는 여성과 남성이 등장하는데, 남성은 신문을 읽고 여성은 빨래를 개고 있으며 남성은 반말, 여성은 존댓말을 쓰는 성차별 표현의 대표적 예시와 같은 홍보물도 포착되었다. 환경부의 저탄소 생활 실천 홍보 게시물에는 명절 음식 준비, 장보는 역할에 여성의 이미지, 운전과 성묘 등을 수행하는 역할에 남성 이미지를 사용해 명절에 목격할 수 있는 전통적 성역할을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그림 64]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이미지(통일부)



[그림 65]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이미지(환경부)

5) 성별 대표성 불균형

-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취약계층, 노약자 등에 여성 이미지 강조>

성별 대표성 불균형 항목은 전체 모니터링 사례 760건 중 262건으로 34.5%에 해당하는 많은 사례가 발견된 항목이다. 이 중에서 '취약계층, 노약자 등에 여성 이미지 강조' 항목은 262

건 중 11건(4.2%)에 해당했다. 미성년 취업 근로자에 여성 이미지를 활용한 고용노동부⁵⁵⁾, 취업계층에 여성 노인 이미지를 활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소득층 지원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 이미지를 활용한 기획재정부 등 여성의 이미지를 취업계층, 노약자를 대표하는 데에 활용한 사례가 11건 존재하였다. 전체 모니터링 사례 중 많은 비중은 아닐지라도 상대적으로 남성이 대표되는 사례의 특성과 이 항목에 해당하는 사례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66]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고용노동부)

55) 고용노동부, 뉴스소식>카드뉴스> [노동법 Q&A] 미성년자입니다. 체불임금 받을 수 있나요?,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81100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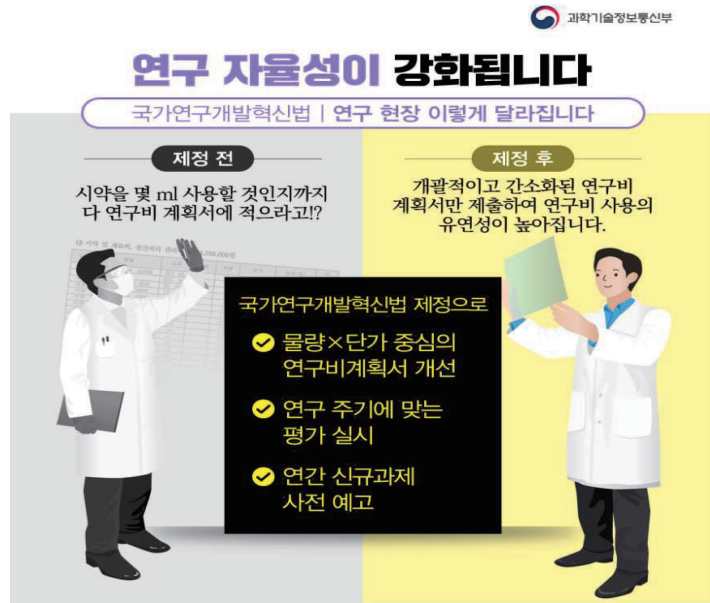
[그림 67]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림 68]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기획재정부)

<전문직, 기업대표 등에 남성 이미지 강조>

특정 성별에 대표성, 기준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성차별을 표현하는 것은 전문직, 기업대표 등에 남성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가장 많이 드러났다.



[그림 69]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림 70]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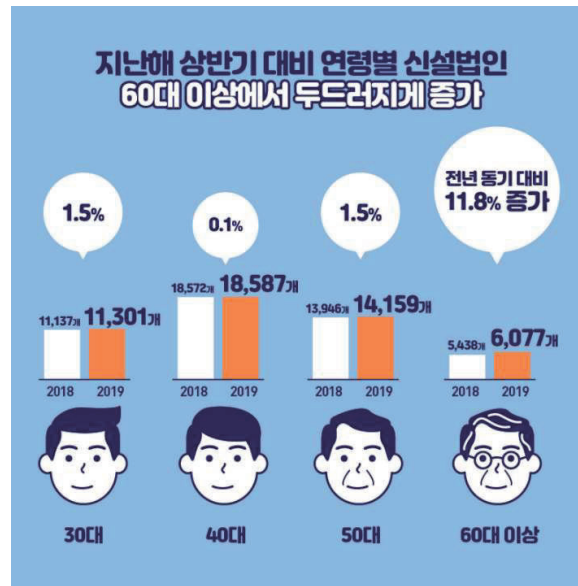
[그림 71]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중소기업벤처부)



[그림 72]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그림 73]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외교부)



[그림 74]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술인재, 중소기업 대표, 중견기업 대표, 여권 대표 이미지,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표로서의 남성이미지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문가 이미지 픽토그램에 아예 넥타이를 맨 남성을 활용한 환경부의 사례⁵⁶⁾, 의원 등 정치인, 세무사, 안전 점검 전문가, 창업, 직무교육자, 전문운영인력, 지방공기업 근로자, 정부 청사 보안 담당자, 일반 공무원, 외교협상 전문가, 노사협정 당사자들, 기업대표자, 토지인허가 담당자, 투자자, 남북관계 전문가 등이 남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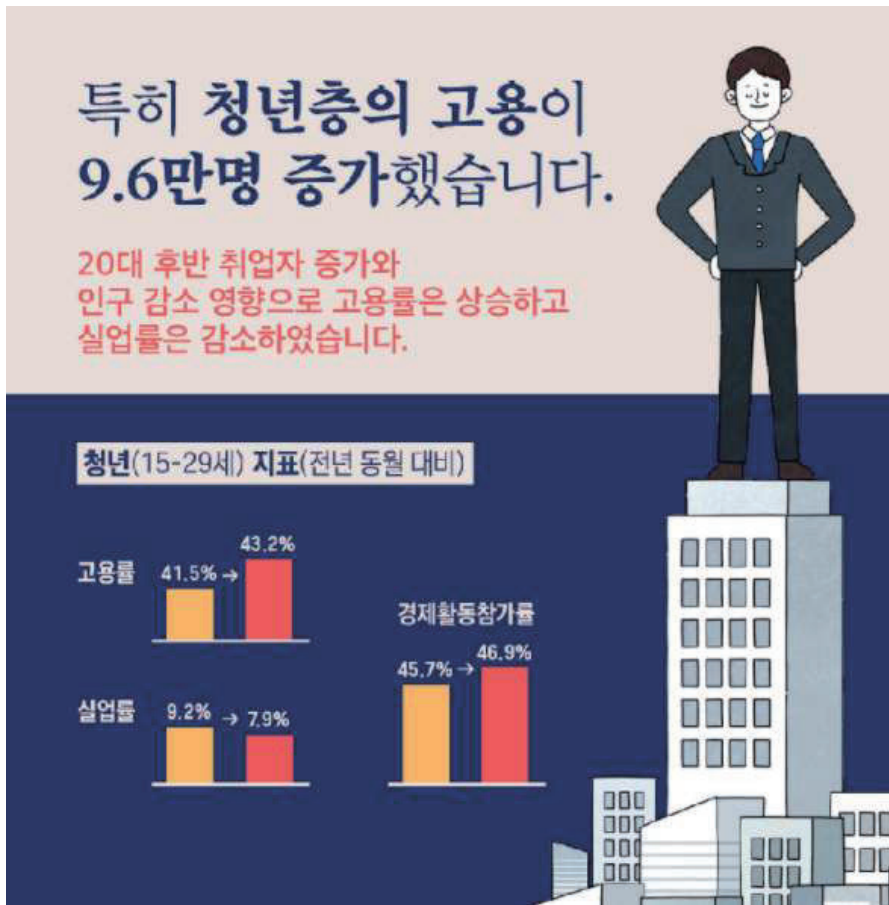
56) 환경부, 정보공개>적극행정>적극행정자료실,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2&maxPageItems=6&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03&orgCd=&boardId=1387910&boardMasterId=767&boardCategoryId=&rn=16>



[그림 75]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환경부)

이외에도 청년층을 남성으로만 표현하는 이미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의 많은 공공 홍보물에서 청년이미지는 남성으로 대표⁵⁷⁾되었다. 대부분의 공공 홍보물에 청년층 이미지는 남성으로 표현되어 과대 대표된 경향이 보인다. 청년 인턴, 청년층, 청년 연구자, 청년 취업 준비생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57) 고용노동부, 뉴스소식>카드뉴스>일의 미래가 궁금한가? 국제노동기구(ILO) 「일의 미래 보고서」 발표,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90300805,
 고용노동부, 뉴스소식>카드뉴스>2018년 연간 고용동향,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90100585
 고용노동부, 뉴스소식>카드뉴스> 11월 취업자수가 16.5만명 증가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81200525
 고용노동부, 뉴스소식>카드뉴스> 청년일자리 및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한 3.9조원 추경예산안,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80600213 등



[그림 76]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고용노동부)

**청년, 여성 일자리는 개선되고 있으며
상용직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노동시장 진입층인 25~29세 고용률은 '82년 이래 최대입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고용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 '18년의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은 최고수준입니다

[그림 77]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고용노동부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판뉴딜

ICT 창업지원사업 ICT창업기업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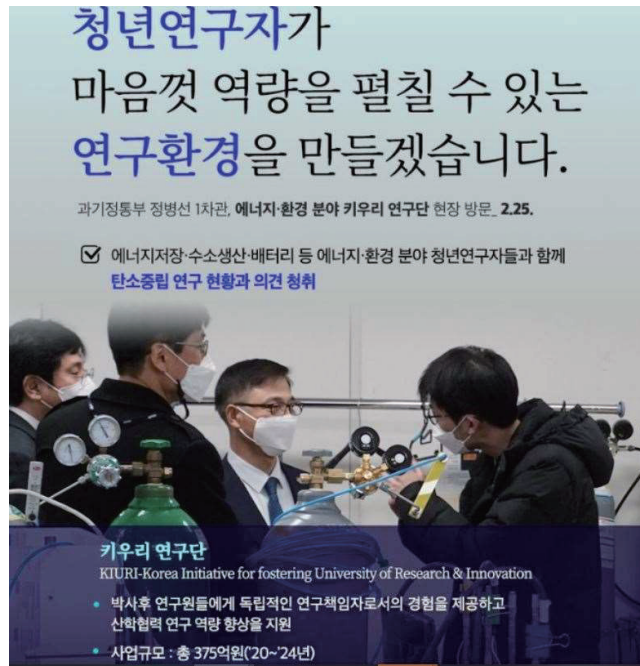
- 청년창업가의 기술·경영 등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멘티기업 (21) 200개 → 375개 (175개 추가)
- ICT 창업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추경 16억 원
(21년 본예산 20억 원)

[그림 78]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림 79]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그림 80]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수인물 등장 시 남성 과다 등장 및 대표인물을 남성으로만 표현>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5인 중 1인이 여성인 외교부 블로그의 게시물⁵⁸⁾, 소상공인 5인 중 1인만 여성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홍보영상⁵⁹⁾, 주도적으로 설명하는 남성과 듣는 남성 4인과 듣는 여성 1인으로 표현한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에 대한 카드뉴스⁶⁰⁾ 등은 맥락상 남성이 더 많이 등장해야 할 이유도, 실제로 남성이 더 많이 필요한 이미지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여성을 최소로 포함한 사례들에 해당한다. 앞 항목처럼 대표에 남성, 그 외에도 남성이 주로 등장하고 여성이 주변적으로 존재하는 성차별 표현 사례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어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청된다.

58) 외교부, 외교부 블로그>외교부와함께해요>모파랑이벤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fakr&logNo=222244273051&categoryNo=37&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59) 중소벤처기업부, 알림소식>동영상뉴스>홍보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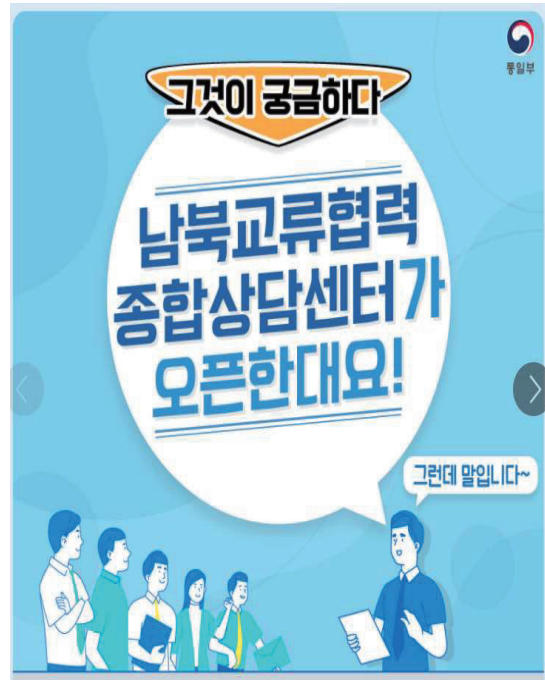
https://www.mss.go.kr/site/smba/brdcststnVod/brdcststnVodView.do?ctgr_code=C03&searchSeq=ST_000000001092882

60) 통일부,

통일소식>카드뉴스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card/?boardId=bbs_00000000000000002&mode=view&cntId=54109&category=&pageIdx=17



[그림 81]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외교부)



[그림 82]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통일부)



[그림 83]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6) 성차별적 귀책 표현

-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 (저출산, 모성 강조 표현 등)

여성을 출산의 주체로 강조하다가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에게 귀책, 모성의 지나친 강조와 미화 등의 맥락을 드러낸 성차별 표현이 담긴 사례들도 여러 곳에서 눈에 띄었다. 가족 내 성역할 강조 항목에서 여성이 돌봄 주체로 과중하게 강조된 것에 이어서 이 항목에서는 출산, 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법무부의 2020년 정책목표를 홍보하는 게시물에서 엄마와 아이의 이미지를 배치한 사례,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관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이 양육자로 등장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보건복지부의 홍보영상⁶¹⁾,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시책 사례집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에 남성 없이 여성만 출산 관련 이미지에 노출된 사례⁶²⁾, 여성 정책으로 출산 관련 정책만 나열한 통일부의 홍보자료⁶³⁾ 등이 그 사례들에 해당한다.



[그림 84] 성차별적 귀책 표현(법무부)



[그림 85] 성차별적 귀책 표현(행정안전부)

61) 보건복지부, 정보>홍보자료>영상으로보는소식, <https://www.youtube.com/watch?v=y28qvQ5gJrk>

62) 행정안전부, 정책자료>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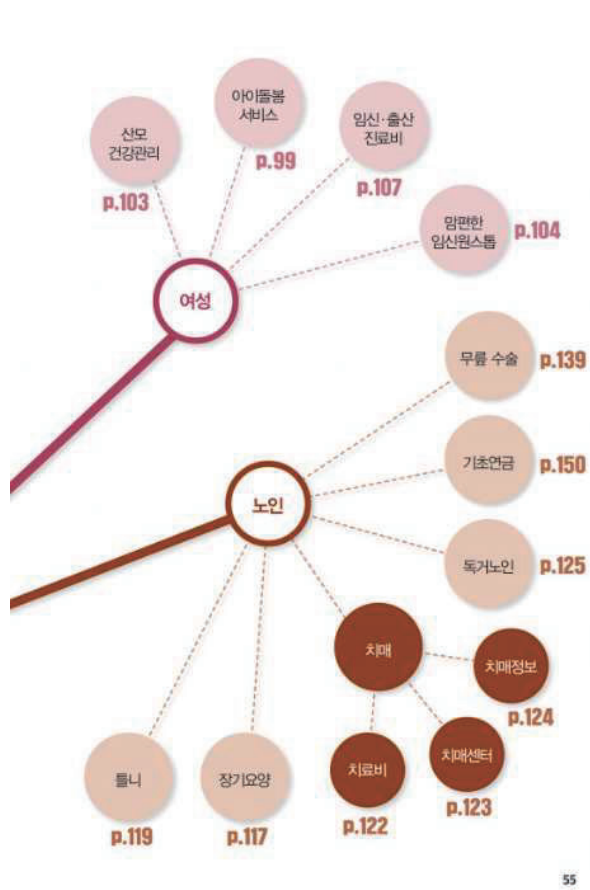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12&nttId=66871

63) 통일부, 통일소식>통일책자>통일복스>자료실,

<https://gonggam.korea.kr/fcatalog/ecatalog5.jsp?Dir=1732>



[그림 86] 성차별적 귀책 표현(보건복지부)



[그림 87] 성차별적 귀책 표현(여성가족부)

7) 구시대적 표현

- 구시대적 표현 사용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과부, 출가외인 등)

구시대적 표현은 정책이나 행정적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시대의 사회 변동 상황을 반영한 용어가 제안된 상황임에도 이 용어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들을 포함한다. 예컨대, 2021년 주거급여 홍보 게시물에 쓰인 ‘미혼’표현이 그 대표적인 사례⁶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88] 구시대적 표현 사용 이미지(국토교통부)

64) 국토교통부.뉴스소식>디지털자료>카드뉴스> 서울에만 분당 3배 규모, 32만 가구 공급! 3년 이상 무주택자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집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35045/dtl.jsp?lcmspage=6&id=95085193

V. 포커스그룹 인터뷰

일시: 2021년 5월 21일 오후 7-9시

참석 전문가: 김유림, 이해우, 최은미, 황미희 4명

참석 연구원: 김은경, 남유진, 강희영, 이은아, 이한빛 4명

사전 과제:

- 1) 각 연구원 당 3-4개 정부 부처 공공홍보물 약식 검토
- 2)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축약형) 검토

1. 연구 개요 설명

- 모니터링 사업 배경, 세부 범위 설정 등 개괄적인 사업 내용 공유
- 연구의 조작적 정의, 한계, 분석 방법, 분석틀, 연구 진행 상황 등 공유
- 세부 분석 예시 설명 및 사례 공유

2. 정부 부처 공공홍보물 약식 검토

1) 김유림

◆ 중소벤처기업부

- '파란색 넥타이의 남자'가 성별대표성 불균형으로 제일 눈에 띄
- 대다수의 썸네일에 인물사진이나 일러스트가 남성이며, 청년의 경우 진취적인 이미지의 청년 남성 CEO의 이미지가, 여러 명 있을 때에는 노련한 이미지의 중년 남성이 중심을 차지함
- 중소벤처기업은 남성이 점유하는 영역으로 비춰짐
- 기상캐스터가 반드시 예쁘게 꾸민 날씬하고 젊은 여성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특정 성별을 특화하는 이미지가 눈에 띄

◆ 보건복지부

- 한 명이 나올 때는 주로 남성이 등장
- 코로나 시국과 관련하여 의료 관련 홍보물이 등장할 때 남성 의사를 등장시키는 사례가 많음
- 간호사, 무급·유급 돌봄 노동자, 사회복지사 등의 직종은 가시화 되어 있지 않음

◆ 행정안전부

-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재난 상황에서 특별히 여성, 아이, 노인, 장애인, 빈곤계층, 이주민 등이 더 취약할텐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음

2) 이해우

◆ 전반적으로 '결국은 다 성별화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음

◆ 문화체육관광부

- 여전히 여성을 소비하는 존재로 많이 그린다라는 것을 확인함

◆ 국방부

- 성별화 되어 있고, 어떤 여성이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의 느낌이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 우리 사회에서 젠더화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주로 표현을 하여, 아직까지 남성의 영역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음

◆ 고용노동부

- 성역할 고정관념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

◆ 교육부

- 과하게 성별화된 지점이 있음

- 홍보물에 세 명의 여성 학생이 등장하였는데 젠더 크로스적인 느낌은 없고, 한 학생은 교복 치마 아래에 체육복 바지를 입은 모습으로 등장하여, 치마를 착용하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에서 불편함을 느낌

- 한 홍보물에서 여성은 다리를 꼬고 앉아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남성은 노트북 보면서 취업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방식으로 이분화되어 있음

- 이미 성별화 되어 있는 직업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이미지를 고착화하고 재현하는데 머물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

3) 최은미

◆ 해양수산부 및 외교부

- 사실 상 성별영향평가 관점에서 연구할 것이 별로 없었는데, 어떤 뚜렷한 경향성이라든지 차별로 보일만한 사례를 찾지 못함

◆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디자인 작업을 외주로 맡기기 때문에 정상 가족의 모습이라든지 기존의 성별에 성별 역할에 맞춘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음.

◆ 국방부

- 성차별적인 요소를 많이 느끼지 못하였으나, 그 이유로 발화의 대상이 남성이기 때문
- 긍정적인 사례로는 동물 캐릭터가 공공홍보물에 등장하여, 등장 이미지의 성별이나 나이를 특정할 수 없음

◆ 통일부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포기하지 않는데, 이산가족의 사연을 소개하는 내용 등에서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 있는 모습 등이 등장
- 웹툰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순정만화화 되어 있는 캐릭터로 등장하여, 할머니임에도 마르고, 허리가 들어가고, 가슴이 나온 전형적인 여성 캐릭터로 표현한 점은 불필요해 보임

◆ 교육부

- 여성 학생의 치마 교복을 포기하지 않는데, 뽕틀을 넘는 여성 학생의 모습에서도 치마를 착용하고 있음
- 교육부에서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등장 인물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캐릭터가 과하게 많이 등장하며 특정 성별에 고착화된 인물이 등장
- 과하게 꾸민 여성 캐릭터가 다수 등장하는데, 시계·귀걸이·리본·분홍색·높은 구두 등 고착화된 여성 이미지를 보여줌

◆ 해양수산부

- 전문가의 직업 수행과 관련 없이 여성은 장신구를 착용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함

4) 황미희

◆ 국토교통부

- 대체적으로 여성은 치마를 입거나 아이를 안는 모습으로 등장하여 가족 및 가족 내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 다양성 있는 가족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모성 강조 이미지가 다수 사용됨

◆ 농림축산식품부

- 특정 직업군에 대한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특히 상담원 이미지를 거의 여성으로

표현하여, 특정 성별의 역할을 고착화 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임

◆ 기획재정부

- 대부분을 사진을 많이 활용함
- 다만 전문적인 영역군의 남성 사진 이미지를 많이 활용.
- 연령에 따라서도 차별을 두는데, 신뢰감을 줄 때는 보편적 남성 이미지를 활용하다가 더 많은 신뢰를 요할 때는 연령이 있는 남성 이미지를 활용 (여성의 이미지는 없음)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성희롱, 업무 트라우마 관련 홍보물에서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로, 성별을 고정하여 표현함

3. 젠더프리 용어 사용 제안 설명

- 여성에게 국한된 용어: 저출산 → 저출생, 유모차 → 유아차
- 부수적으로 여성을 명기하는 용어: 여의사, 여교수, 여류작가, 여학생
- 여성과 돌봄 노동을 연결하는 용어: 모성쉼터

4. 보고서 피드백

1) 김유림

- 성별 영역에 성별 용모, 임신, 출산, 가족과 함께 성소수자를 범위 안에 설정하였는데, 성소수자를 성별영역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 더 큰 범위에서 '젠더 관점'으로 표기하는 것을 제안함
- 혐오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Misogyny의 차별·폭력을 포괄하는 범위인지 궁금함

2) 이해우

- 분석 틀이 되는 항목을 보면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편견, 관념 및 편견 구획을 나눈 것은 어떻게 구별이 가능한 것인지, 지표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함
- 법무부 딥페이크 사례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음
- 캣콜링 사례는 여성을 미숙한 존재로 보는 것으로 여성 멸시의 형태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함

3) 최은미

- 최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근성을 갖는 것이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모니터링 대상에 없는 것이 아쉽고, 추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가장 많은 사례가 발굴된 2개 항목인 성역할고정관념 강화와 성별대표성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구분 기준이 궁금함

4) 황미희

- 성별영향평가항목 분석에서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개인 간 문제로 여기는 항목의 사례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확인이 필요함

5. 피드백 관련 토론

1) 유튜브

- 뉴미디어는 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공공홍보물과 구분하여 모니터링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썸네일은 유튜브 내용의 압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뉴미디어 모니터링을 진행할 때 썸네일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

2) 답페이크 사례

- 범죄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의 상품화 측면에서 분석함

3) 캣콜링 사례

- 가장 하단에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를 하라 라는 문구가 등장하여 복합적인 사례로 분석되는데,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사례로 카운트를 진행

4) 중복 사례

- 사례를 항목별로 분류할 때 중복체크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나, 사례가 과도하게 많이 나타날 것을 대비하여 가장 포션이 큰 항목으로 카운트를 진행함

5) 기타

- 성소수자는 이성애 중심 이데올로기를 지적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설정
- 혐오는 미소지니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

VI. 정책 제언

1. 공공홍보를 위한 ‘성평등 이미지’ 제공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후적인 조치도 중요하나 공공홍보물 제작 단계에서 성차별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북유럽국가(www.norden.org)의 이미지 뱅크(Image bank)를 들 수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평등 이미지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다운로드(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CCL)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표 26> 북유럽국가의 이미지 뱅크 분류 내용

대분류 12개 주제	사회분야 18개 항목	성평등 항목
비즈니스, 문화, 환경, 지리, 건강, 이니셔티브, 입법과 정의, 회의와 이벤트, 사람들, 장소, 시상, 사회	아이들과 청년, 공동체, 장애인, 교육, 노인, 가족, 표현의 자유, 성평등, 주거, 사회통합 남성, 이사, 종교, 연구, 학교, 여성, 일하는 삶, 자전거 타는 방법 배우기	여성 옷을 입는 젊은 남성, 시위, 여성 바이커, 럭비하는 여성들, 여성 목수, 남성 플로리스트, 토끼 훈련시키는 남성, 바다, 동성애자 카페, 레이카비크의 시민들, 이누이트 조각, 숲속의 엄마와 딸, 거실에 있는 가족, 공원의 여성과 남성, 부엌에 있는 가족, 아빠의 육아휴직, 가족 생활, 젠더, 심볼, 인신매매, 무지개 깃발

① 부엌에 있는 가족

2019-03-24

설명 ; 요리하는 아빠와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 덴마크 코펜하겐



[그림 89] 성평등한 부역에 있는 가족 이미지

키워드 Keywords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남성, #건강, #레크리에이션, #북유럽지역, #아이들과 젊은이들
#여성 #복지와 건강, #문화, #덴마크, #복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성평등, #장르 사진, #사회

1년 전 업로드

해상도 Resolution 5184 x 3456 px

크기 9.59 MB

사진작가 : Emmi Storgård / norden.org

저작권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이 이미지는 상업적 목적 이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e.g. NN - norden.org)

마임타입 image/jpeg

② 아빠 육아휴직



[그림 90] 육아하는 아빠 이미지

키워드

#성평등 #남성 #도시생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아이들과 젊은이들 #장르 사진 #사회
2년전 업로드

해상도 3504 x 2336 px

사이즈 772.78 KB

사진작가 Magnus Fröderberg/norden.org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이 이미지는 상업적 목적 이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e.g. NN - norden.org).

마임 유형 Type image/jpeg

③ 레이카비크 주민

설명 ;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시내 주민



[그림 91] 육아하는 아빠 이미지2

키워드

#아이슬란드 #남성 #북유럽지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아이들과 젊은이들 #성평등
#장르 사진 #사회 #사람들

2년전 업로드

해상도 5760 x 3840 px

사이즈 2.79 MB

사진작가 Yadid Levy/norde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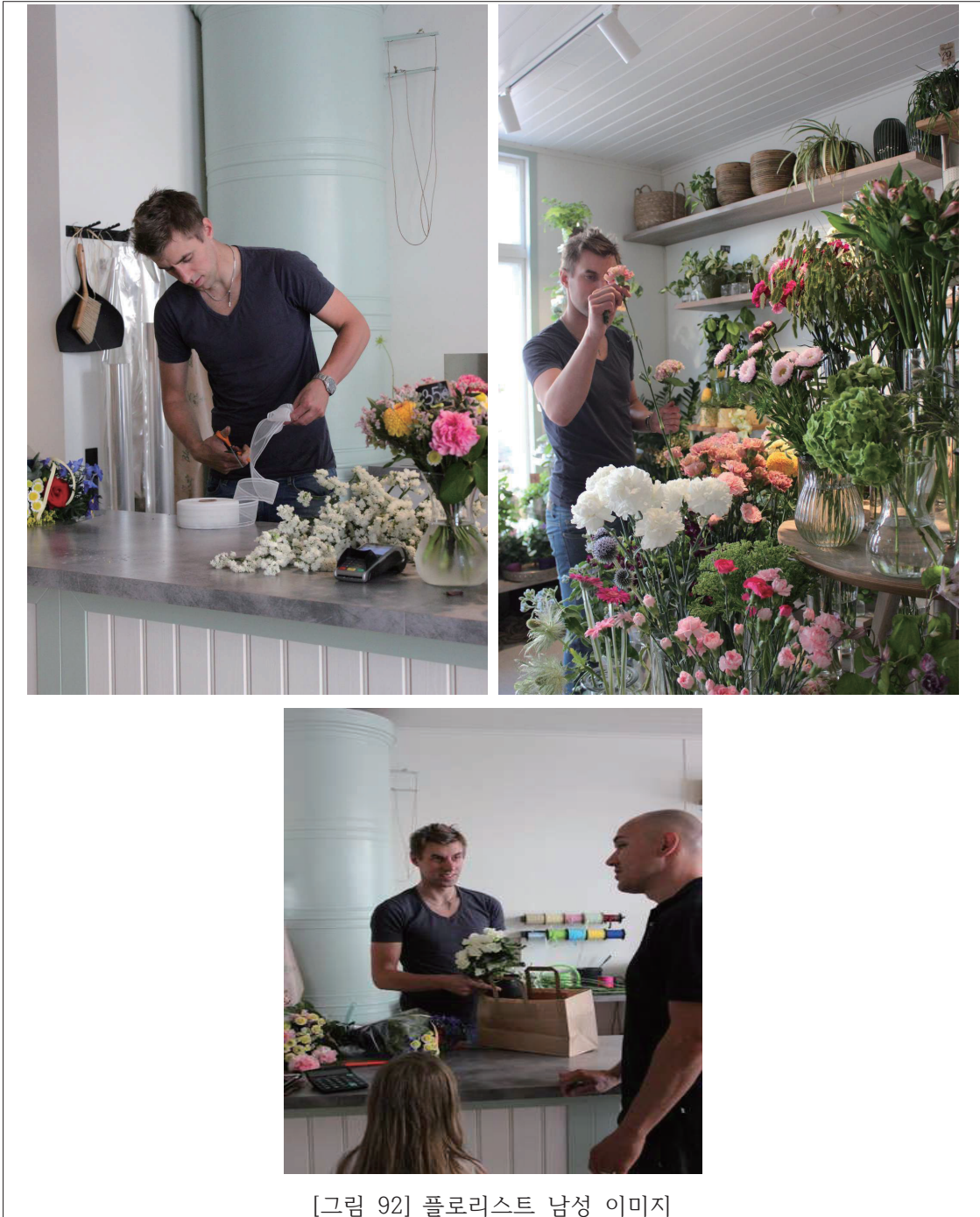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이 이미지는 상업적 목적 이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e.g. NN - norden.org).

마임 유형 Type image/jpeg

④ 기타 이미지 사례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이미지들

- 남성 플로리스트(화훼전문가),



[그림 92] 플로리스트 남성 이미지

- 럭비 하는 여성들, 여성 바이커들, 여성 벌목꾼



[그림 93]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
바이크를 타는 여성, 여성 벌목꾼
이미지

- 요리하는 아빠, 아이들과 엄마, 부엌에 있는 가족, 거실에 있는 가족, 바다가의 가족



2. 공공홍보 가이드라인 개발과 사전 컨설팅

공공홍보물에 게재된 성차별적 내용과 표현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이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차별적 고정관념 없이 소통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지원한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함께 도정 홍보물에 대한 성인지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 홍보물 제작 가이드’를 마련하였으며, 홍보물에 대한 사전 컨설팅, 홍보물 담당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연중 캠페인을 계획하였다. 홍보물에 대한 사전 컨설팅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경기도의 모든 과에 ‘성인지 관점에 홍보물 컨설팅’시행을 공문으로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 담당자가 컨설팅을 요청하면 양성평등정책팀의 전담관이 모니터링 후 개선안을 제시하는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⁶⁵⁾

△ 경기도 성평등 도정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표 27> 경기도 성평등 도정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내용

구분		세부내용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	(직업상의 위계)남성은 회사 중역 등 중심적 역할로, 여성은 비서 등 보조적 역할로 그려지고 있는가?
		(직군의 분리)남성은 과학자, 첨단산업종사자, 건설노동자, 사업가, 여성은 콜센터 직원, 돌봄 노동자, 판매원, 서비스업 종사자로 그려지고 있는가?
		(취미, 관심분야) 여성은 쇼핑, 음악, 문화에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기계,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여성다움' 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	(인성) 여성은 순종, 암전, 의존, 소극, 유약, 놀람, 당황, 보호받는 대상으로 남성은 강인, 씩씩, 적극, 당당, 요감, 책임, 보호하는 주체로 그려지고 있는가?
		육아휴직 중인 남성이나 전업주부 남성을 무능력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남성으로 희화화하고 있는가?
		(스타일) 여성은 분홍색, 긴 머리, 짧은 치마를 남성은 파랑색, 짧은 머리,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가?
	성차별적 언어 표현	(성별 역할) 여성의 역할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성별 속성) 여성성, 남성성의 규범을 표현하거나 강요하는가?
		(비하나 모욕) 비하적인 용어로 상대방을 규정하는가?
		(성적 대상화) 상대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외모지상주의	(외모 규범) 여성은 예쁘고 날씬하고 몸매가 좋아야 하고 남성은 잘생기고 키 크고 건장하고 근육질이어야 한다는 규범을 표현하거나 강요하는가?	
	(외모 차별) 못생긴/뚱뚱한 여자를 희화화하거나 작고/왜소한/뚱뚱한 남자를 희화화 하는가?	
성별대표성 불균형	등장인물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특정한 성별, 연령, 인종, 장애여부 등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배제하고 있는가?)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가족의 형태) 다양한 가족형태를 나타내는가?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족 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대가족, 다문화 가족 등	

65)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성평등 홍보물 제작 가이드」, 2019.

	(가족 내의 성역할) 여성은 가사, 육아담당자로, 남성은 경제적 부양자로 나타나고 있는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성별을 기준으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가?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이미지의 배치와 비중	(중심/주변 배치) 특정성이 중심에 다른 쪽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가?
	(정면/측면 배치) 특정성이 정면을 응시하고 다른 쪽이 옆을 보거나 뒷모습으로 재현되어 있는가?
	(비중과 명암: 크게/작게) 특정성이 크게/선명하게/앞쪽에 그려지고 다른 쪽이 작게/흐리게/뒤쪽에 재현되어 있는가?

프랑스는 여남평등최고회의(HCE)의 주도하에 '성차별적 고정관념 없는 정부·공공기관 미디어 홍보 가이드' (Pour une communication publique sans stéréotype de sexe)를 만들어 공홍보와 소통을 위한 공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간의 수적인 차원의 불균형, 제한적인 역할과 상황에 여성과 남성을 가두는 일, 각 성의, 특히 여성의 희생을 대가로 한 지위와 기능의 위계서열 등 무의식적 차원에서 강화되고 재생산되는 남녀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고정관념 없는 공공소통을 위한 10가지 권고사항⁶⁶⁾

(10 RECOMMANDATIONS pour une communication publique sans stéréotype de sexe)

- ① 성차별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 ② 직업, 직급, 직위에 관한 명칭을 남녀 모두에게 일관되게 표현한다.
- ③ 남성형과 여성형을 알파벳 순서에 따라 동시에 표기한다.
- ④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를 나열할 때 남성형이 습관적으로 앞에 표시되는 일이 없도록 알파벳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 ⑤ 이름, 직업 등에 관한 정보를 남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정확하게 표기한다.

66)Bousquet, D., & Abily, G. (2015). Guide pratique pour une communication publique sans stéréotype de sexe.

(남성의 경우, 이름과 성, 직업, 직위까지 언급이 되는 것과 달리 여성들의 경우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이름만 언급되는 것은 차별이다. 이름만 언급하는 것은 여성을 사적이고, 가족 간 존재로 한정하며, 여성의 능력을 저평가하는 차별을 불러온다. 남성의 일로 간주되는 직작업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사려 깊은, 요리를 잘하는, 집안일을 잘 처리하는, 옷을 잘 입는 등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

⑥ 개인적인 일, 특별히 가족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관리직에 있는 여성들에게 일과 가정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런 질문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남성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한다.)

⑦ 단수 (여자)가 아닌 복수(여성)로 표기한다.

(성고정관념에 부합하는 표현들과 분리하여 사용한다. 현실적인 존재로서 여성을 표현한다. 부드러운, 매력적인, 여성스러운, 모성 등 사회가 요구해 왔던 특성을 지닌 여자가 아닌 일상에서 만나는 취미, 개성 등에 있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여성으로 표현한다. 뷰티 콘테스트, 장미(꽃) 선물을 하지 않는다.)

⑧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과 남성을 표현한다.

(여성과 남성을 스테레오타입에 가두지 않는다. 실제, 가사노동의 80%를 여성이 담당한다 해도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로 표현하지 않는다. 아이를 돌보는 남성, 남성 간호사, 여성 기업 대표, 여성우주인, 여성엔지니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홍, 부드러운 색을 여성으로, 파랑, 어두운 색을 남성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돌봄 활동에 여성을, 관리직, 기술, 과학 분야에 남성을 표현하지 않는다. 활동적인 옷을 입은 남성, 노출 의상, 실제 활동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여성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남성에게 종속적이고, 선정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여성을, ‘지배적이고 확신에 찬’ 남성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앞줄에 남성, 남성 뒷줄에 여성을 위치시키지 않는다. 남성을 외부 또는 직업적 환경에, 여성을 내부 또는 가정에 한정짓는 표현 방식을 피한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남녀 모두 상호 협력적인 권력관계로 묘사한다.)

<표 28> 과학기술분야 여성참여 확대 사례 이미지

과학 기술 분야로의 여성참여 확대	
잘못된 사례	바람직한 사례



<표 29> 스포츠 분야 여성 사례 이미지

스포츠와 여성	
<p>잘못된 사례</p>	<p>바람직한 사례</p>

㉠ 이미지에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숫자상 균형을 맞춘다.

(사진, 인포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등에서 보여지는 여성과 남성의 숫자 재조정을 한다.)



[그림 95] 성비 균형이 필요한 사진

문서 또는 이미지 상에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인원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균형을 맞춘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 여겨지는 분야/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 여겨지는 분야/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림 96] 직업에 대한 성관념을 배제한 이미지

⑩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행하고 이 가이드를 배포한다.

본 자료는 남녀간 평등을 위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기초적인 행동을 목표로 제시되었다. 오랜 시간동안 무의식적으로 자리해온 성고정관념과 싸우기 위해서는 공공커뮤니케이션의 남녀 행위자들의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공무원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

3. ‘성고정관념 없는 공공소통’을 위한 협약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국회, 광역·기초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노동조합, 시민단체 그리고 성차별적이지 않은 소통을 원하는 모든 기관이 성고정관념 없는 공공홍보를 위한 약속에 서명할 것을 권한다. 프랑스 여남평등최고회의(HCE)는 ‘성차별적 고정관념 없는 정부·공공기관 미디어 홍보 가이드(Pour une communication publique sans stéréotype de sexe)’를 중심으로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모범을 보이도록 협약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협약에는 합의한 원칙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행동을 담고 있다.

1. 공공영역의 책임자로서, 대내외 공공 홍보에서 성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협약에 서명한 기관은 본 실천 가이드를 채택하고, 이를 모든 남녀 대리인들에게 배포한다. 특별히 커뮤니케이션을 맡은 남녀책임자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임기 만료 시 인트라넷에 업로드한다.
3. 본 실천가이드는 협약에 서명한 기관의 홍보와 소통 증대를 위해 대외 홍보와 재무 담당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표 30> 성고정관념 없는 공공소통을 위한 협약 서문



서문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여성해방의 가치와 일상적인 차원에서 남녀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사회진보의 가치로서 각국의 헌법은 물론 유럽과 국제사회 문건에 명시된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이것은 2014년 8월 4일 남녀간 실질적 평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해 확인된 남녀간 평등의 완전한 이행을 의미한다.

소통의 문제에 있어 공권력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 ; 연설, 세미나, 비디오, 웹사이트, 공식 문서, 건물의 이름과 도로명 등 지원해야 할 일은 다양하고 수없이 많다. 이를 통해 성고정관념을 강화하고 확산하는 것을 막아내는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언어에서 여성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제한적인 역할에 남성과 여성을 가두는 일, 여성을 전문가로 표현하지 않는 일, 이 모든 관행들이 성고정관념과 불평등을 강화한다. 성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남녀 모두를 위한 가능성의 영역을 넓히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고정관념없는 공공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에 담긴 10가지 권고사항에 담긴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본 권고사항의 존중은 공공재정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기준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2019년 9월 현재 협약에 서명한 기관은 여남평등부를 비롯하여 농업부, 교육부, 법무부, 연대보건부, 체육부, 노동부 등 정부부처, 하원의회를 비롯하여 사회경제위원회(CESE), 16개 지방의회, 25개 대학,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 20개 도청과 지역단위 연구기관, 그리고 노동조합, 시민사회 단체 등이다.

4. 공공홍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오랜 시간동안 무의식적으로 자리해온 성고정관념과 편견에 맞서기 위해 공공커뮤니케이션의 남녀 행위자들의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 지방정부, 기타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대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약 체결과 동시에 성차별 없는 공공홍보를 위해 요구되는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자원, 시스템 구축(이미지뱅크 운영),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은 2011년 제정된「성별영향분석평가법」(현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 일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 성별영향평가교육에 제도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서 대상을 ‘전체’공무원으로 개정하여 확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3월 25일에 권인숙 의원 외 18인이 공동 발의한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은 성인

지교육 통합과 함께 공무원 교육에 성인지정책교육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성평등정책의 발전과 함께 성평등사회를 향한 관련 교육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제도화 되어왔으나 교육의 목표 및 교육내용과 같은 교육과정의 설계, 교수자의 자격과 훈련에 대한 현장과 정책 간 소통, 기획-집행-산출에 이르는 일련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환류체계의 마련 등 체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제도가 아닌 현장의 필요와 학습자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인지교육기관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기획, 실행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전문적이고 집중화된 내용 설계와 과정운영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528호, 2021. 3. 9., 일부개정]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부족은 공공 홍보물에서 발견되는 성고정관념의 제거 실패에 의해 입증된다. 그 동안의 성과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홍보는 변화하는 세계 속의 다양한 여성의 삶과 사회 기여에 대한 균형 있는 묘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나아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어떤 이미지도 제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책임과 권한을 지닌 담당 공무원들에 의한 자율규제 장치는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균형 있고 비정형화된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묘사를 촉진하도록 전문적인 지침 및 행동규범 혹은 기타 적절한 자율 규제 장치가 개발되고 작동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교하게 설계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충분한 제정 배분이 전제될 때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9). 경기도 성평등 홍보물 제작 가이드: 수원: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7). (성인지관점의 정책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집 :2017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안태운(2021). 경기도 젠더거버넌스 운영의 성과와 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172호.
-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YWCA(2017).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Bousquet, D., & Abily, G. (2015). Guide pratique pour une communication publique sans stéréotype de sexe.
- France. Haut conseil à l'égalité entre les femmes, & les hommes. (2016). Pour une communication publique sans stéréotype de sexe: guide pratiqu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European Parliament(2018). GENDER-NEUTRAL LANGUAGE in the European Parliament
- IOC(2018). Portrayal Guidelines for Gender Balance Representation.
- UNESCO(2012). 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framework of indicators to gauge gender sensitivity in media operations and content. France: UNESCO.

참고사이트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https://gwff.kr/edubiz/giac/>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
- 교육부: <https://www.moe.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 국방부: <https://www.mnd.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510>

대한민국 청와대: www.president.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법무부: <https://www.moj.go.kr/>
법무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jjustice>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RsetXyMdnRsR4M9KvA-a_fg
북유럽국가 협의체: www.norden.org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smom>
서울시 소통포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066545>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347492069>
외교부: <https://www.mofa.go.kr/>
외교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List.nhn?blogId=mofakr&from=postList&categoryNo=1&parentCategoryNo=1>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s://www.0404.go.kr/dev/main.mofa>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 지수: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19/03/08/the-glass-ceiling-index>
중소기업 옴부즈만: <https://www.osmb.go.kr/main/main.jsp>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bizinfo1357>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
통일부 통일북스: <https://unikorea.go.kr/books/>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wisetter/221804453351>
한국YWCA연합회 누리집: <https://ywca.or.kr/activity/genderequality/?tab=intro>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
UN Gender-inclusive language:
<https://www.un.org/en/gender-inclusive-language/index.shtml>



성별 관련 공공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 적용 및 차별표현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 인쇄일 | 2021년 07월
| 발행일 | 2021년 07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672